여성 야구팬 먹거리 노려라

월드컵 대표팀 최종명단 발표

메트로신문 창간 12주년 음악회…신영옥 5월 감사와 위로의 메시지 전하다

메트로신문이 창간 12주년 기념으로 주최한 '스트라디바리우스와 함께하는 5월 어버이날 콘서트'가 8일 서울 교보컨서트홀에서 열렸다. 어버이날을 맞아 부모와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운 동시에 슬픔에 잠긴 국민들에게 음악으로 위로를 전했다. 신영옥은 아무 장식도 없는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해 마리아 고구노를 선율로 '아베 마리아'를 들려 세월호 희생자의 넋을 달랬다. <관련기사 17면> 사진/

1020원대 환율…한국경제 '빨간 불'

5년 9개월 만에 최저, 원화강세 과도한 측면
현대기아차 10원 하락하면 2000억 손실 발생
수출주도 기업 치명타…정부 예의주시 신중

"원·달러 환율하락과 신흥국의 환율상승 등 환율 리스크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수익성 개선 폭이 둔화됐다"-이원희 현대차 부사장

원·달러 환율이 1020원선을 위협하며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수출 주력업종인 전자·통신기기와 자동차, 조선산업의 경우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환율은 전일 1022.5원보다 소폭 상승한 1022.6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그러나 하루 전인 7일에는 연저점인 1022.5을 기록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2008년 이후 5년 9개월 만에 최저치다.

환율 하락세는 재닛 옐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융 완화적인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면서 엔의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국내로 유입되는 달러화가 늘어나는 등 원화 강세 요인이 쌓여 환율 하락세를 부채질했다.

외환 전문가들은 "월간 움직임을 봤을 때 원화 강세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환율이 20원대로 내려온 것은 대외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수출주도형 기업 환율 직격탄

환율하락에 따른 원화 강세가 지속되며 국내 기업도 좌불안석이다. 연초 환율 하락에 대비해 헤지(Hedge) 등으로 환위험도는 낮췄지만 자동차 전자 조선 등 수출이 중심인 국내 기업에 환율하락은 치명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매출액 기준 340대 제조업체 가운데 106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원·달러 환율 손익분기점을 1066.4원으로 잡았다. 이마 마지노선인 1066.4원이 무너진 상황이어서 위기감은 어느 때보다 높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1040원 선까지 손익분기점으로 전망했다"며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 비중이 많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지만 원·달러 환율이 계속 하락하면 불안감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자동차 업계는 환율 직격탄에 그대로 노출됐다. 현대기아차그룹은 수출 비중이 80%로 환율이 10원 하락하면 현대차는 1200억원, 기아차 800억원 등 총 2000억원의 손실을 보는 구조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올해 사업계획에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을 1050원으로 시장 예상치(1060원)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7일 환율이 1022.5원으로 마감하며 상황이 달라졌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조선업계들도 원화 강세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표 조선업계들은 환율 변동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환헤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은 환율이 떨어져도 연계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 수주 경쟁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조까지만 해도 호조를 보이던 국내 조선업계 수주실적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환율의 수준이나 속도 등에 대해서는 코멘트하기 어렵다"면서도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에 대해선 정부가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10면>

/김태균 경인인 기자 ktkst@metroseoul.co.kr

孝 주제 만화·캐릭터 응모하세요

메트로신문사·경민대학교 주최…내일 마감

메트로신문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경민대학교 국제 효 만화센터와 2014 국제 효만화 공모전을 공동 주최합니다.

올해로 여섯돌을 맞는 국제 효만화공모전은 문화체육관광부, 서울메트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등이 후원하고, 단일 공모전 사상 최대의 응모 작품수를 기록하는 최고 권위의 '효' 공모전입니다. 많은 참여와 성원 바랍니다.

▲응모분야: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응모주제

1.만화/애니메이션 부문(택1) 내가 꿈꾸는 효도/어머, 엄마 힘내세요!/나에게 효도란(효 경험담)

2.캐릭터 부문(택1)-율곡 이이 관련

▲응모대상

1.한국: 유치, 초등, 중등/고등, 일반, 대학부문 지원가능(형식 자유)

2.외국-유치, 초등, 중등/고등, 일반, 대학부문 지원가능(다문화특별부문:해외/재한국인)

▲응모기간: 2014년4월15일~5월10일 (당일 우편소인 유효)

※작가분은 영상 제출실 준수가 어려운 경우 신청수도 가능

▲수상작 발표: 2014년 5월중(예정)

▲작품규격: 1점(271×364㎜)

▲제출물

1.작품원본, 응모신청서

2.응모신청서는 1작품당 1부씩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www.hyoban.com)

▲제출처: 우편 또는 방문 접수시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2가 1-141 142/온라인접수시 kwait@metroseoul.co.kr

▲문의전화: 02-730-2100 메트로신문사 경영기획실

▲참가비: 없음

metro

진도 찾은 야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8일 오전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인기 3대 北에서 발진

컴퓨터 저장내용 분석 결과 개성·해남·평강서 비행

국방부가 우리 지역에서 추락한 채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8일 "경기도 파주와 서해 백령도, 강원도 삼척에서 3~4월 발견된 무인기 3대의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임무명령서(발진·복귀 좌표)를 분석한 결과, 3대 모두 발진지점과 복귀지점이 북한 지역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3월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복귀지점이 개성 북서쪽 5㎞ 지역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무인기의 발진·복귀지점은 해주 남동쪽 27㎞ 지역이었다. 이들 무인기는 비행조종 컴퓨터에 저장된 비행계획과 남측지역의 사진촬영 경로가 일치했다.

파주 무인기는 청와대 등 수도권 핵심시설을, 백령도 무인기는 서해 소청도·대청도의 군부대를 주로 촬영했다.

지난달 6일 삼척에서 발견된 무인기는 발진·복귀지점(38.4057N 127.4785E)이 북한 강원도 평강 동쪽 17㎞ 지역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투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불가침 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명백한 군사도발"이라면서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정전협정에 근거해 유엔사를 통해서도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공망이 뚫렸다"는 지적과 관련해 "전 부대의 경계 대공감시태세를 강화하고 소형 무인기 탐지 식별을 위한 레이더와 대공포, 육군 헬기 등 타격체계를 조정해 운영 중"이라며 "중요지역에 대해서는 소형 무인기를 동시에 탐지 타격할 수 있는 통합체계를 우선으로 구축하고 다른 지역은 현존 전력과 추가 보강 전력을 최적화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준기자 mk.n@metroseoul.co.kr

'K-뷰티' R&D 투자 늘려야

기자 수첩
정 혜 인
<생활경제부 기자>

국내 화장품 산업은 연간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 해외 현지에선 'K-뷰티'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다. 하지만 이런 성장세에 비해 국내 업체들의 R&D 투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우려된다.

2013년 보건산업통계집에 따르면 2012년 말 기준 국내 화장품 업체의 연구개발비는 2291억원으로 전년대비 16.3% 줄었다. 매출액이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 데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도 2010년부터 3년째 감소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축적할 수 있도록 R&D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최근 업계는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지만 시장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이 나오고 있는지 의문이다. 그저 할인 경쟁을 반복하거나 인기 아이템을 모방한 미투 제품을 쏟아내고 있어 제살 깎아먹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전 세계 업계 1위인 로레알 그룹은 매년 연구개발비로 매출의 3~4%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은 2.68%, LG생활건강은 2.4%를 투자하는 데 그쳤다. 이 비중이 앞으로 지속된다면 국내 업체들은 경쟁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K-뷰티가 전 세계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기술력이라는 근본적인 방식을 모색해야 할 때다.

여야 원내대표 새얼굴 새누리당 이완구 신임 원내대표(왼쪽)가 8일 황우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영선(오른쪽) 의원이 역시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KBS수신료 인상' 단독상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8일 KBS 수신료 인상 승인안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반대가 이어지면서 파행됐다.

미방위원장인 새누리당 소속 한선교 의원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텔레비전수신료 인상 승인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등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은 "수신료 인상안을 안건으로 다룰 수 없다"며 회의장 입장을 거부했다. 이날 회의는 여당 의원들만 참석해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토론을 한 후 30여 분만에 정회됐다.

/조현정기자

여야 원내대표에 이완구·박영선

여야의 새 원내대표가 8일 나란히 선출됐다.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새 원내대표로 이완구 의원을 뽑았다. 원내대표 러닝메이트인 정책위의장에는 주호영 의원이 당선됐다. 이들은 단독 출마해 표결 없이 박수로 추대됐다.

이 원내대표는 전신 한나라당을 포함해 충청권을 지역구로 둔 첫 원내대표다. 그는 1950년 충남 청양 출생으로 대전중·양정고를 거쳐 성균관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후 1974년 행정고시(15회)에 합격해 충남 홍성경찰서장과 충북·충남 경찰청장을 지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 원내대표로 박영선 의원을 선택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첫 여성 원내대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내 경선에서 결선투표까지 가는 대결 끝에 전체 투표 참여자 128명 중 69표를 얻어 59표를 득표한 노영민 의원을 누르고 원내대표에 당선됐다.

경남 창녕 출신의 박 원내대표는 1982년 MBC보도국에 입사했으며 2004년 정계에 입문, 열린우리당 대변인으로 활약했다. 17대 의원 비례대표로 첫 의정 생활을 시작했으며 18대~19대 총선에서 서울 구로을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조현정기자 h@

뉴스&뉴스

올해 공무원 평균 월급 450만원 육박

● 안전행정부는 올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을 447만원으로 관보에 최근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기준소득월액은 공무원연금의 보험료와 수령액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2011년 395만원에서 2012년 415만원, 지난해 435만원으로 오른 데 이어 올해 450만원에 육박했다.

정몽준·김황식 화해 모드… 고발 취하

● 새누리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몽준 의원은 8일 "본선 승리를 위해 네거티브 중단을 제안한다"며 경선 상대인 김황식 전 국무총리 측을 상대로 검찰에 제기한 고발건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 전 총리 측도 "정 후보의 말씀은 좋은 취지"라고 화답했다.

"북 핵실험, 중국에 대한 정면도전"

윤 외무 뉴욕서 회견

윤병세 외교장관은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이는 중국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토론을 주재하기 위해 뉴욕에 온 윤 장관은 7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의 한국 유엔대표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중국도 북한의 핵실험을 막기 위해 여러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단호하고 원칙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있을 경우 국제사회가 이전보다는 훨씬 강한 수준의 제재를 할 것"이라면서 이 제재에는 중국도 동참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과거 3차 핵실험 때 중국이 북한을 제재한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제재 형태를 논의할 시점에는 중국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고 봤다. 그 이유로 중국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중요하게 여기는 점에는 북한의 비핵화뿐 아니라 북한의 안정도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윤 장관은 중국이 북한을 대하는 태도에서 과거와는 크게 달라졌다면서 중국 지도층들도 북한 핵문제가 중국의 안보와 안전에 점증하는 위협이라고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민준기자

'소환 불응' 자녀들 체포영장

유병언 다음주 소환 집중수사… 청해진해운 대표 포함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측근들이 검찰의 3차 소환에도 불응함에 따라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세월호 실소유주 비리'를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은 8일 혁기씨와 장녀 섬나(48)씨, 측근 김혜경(52) 한국제약 대표이사, 김필배(76) 전 문진미디어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한 채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뒤 여권을 무효화하고,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미국 수사당국과 함께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미국 연방수사국(FBI)와 국토안보수사국(HSI)에 수사 공조를 요청하는 등 강제 소환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또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를 먼저 불러 사법처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유 전 회장은 다음 주께 소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별도로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를 이날 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김씨는 세월호 과적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무시하거나 방치, 세월호가 침몰에 많은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세월호 증축과 복원력 유지에 필요한 평형수 부족 등 사고 원인과 관련된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도 추가됐다.

수사본부는 청해진해운 상무 김모(62)씨와 해무이사, 물류팀 부장 차장을 구속한 데 이어 최고 책임자인 김씨를 체포하면서 선사 관계자 5명이 사법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윤다혜기자 ydh@metroseoul.co.kr

남겨진 슬픔 세월호 침몰사고 23일째인 9일 오후 전남 진도군 진도실내체육관이 실종자 가족들이 하나 둘 떠나가면서 빈자리가 유난히 크게 보인다. /연합뉴스

시신 유실 대비 수색 80km 확대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의 시신 유실과 유류품 수거 등에 대비한 수색 범위가 80km까지 늘어났다.

그동안 사고지점에서 약 60km 떨어진 범위까지 그물, 선박을 이용한 해상수색과 항공수색을 벌여온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8일 "어제부터 해상수색 범위를 침몰지점으로부터 약 68km 떨어진 보길도·소안도까지, 항공수색은 80km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사고 해역에서 남북 20km, 동서 16km까지 펼쳐진 총 284㎢의 구역 중 지난 1일 84㎢를 사이드 스캔 소나 를 장착한 선박으로 해저영상탐사를 한 뒤 추가 탐사를 통해 총 187.4㎢까지 진행했으나 실종자로 추정되는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남 진도와 해남 해안가에서 신발 2점, 의류 1점 등 4점을 발견했지만 해상에서는 별다른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 /김보준기자

뇌출혈 쓰러진 해경 회복

세월호 실종자 수색 작업 직후 뇌출혈로 쓰러져 한때 의식을 잃었던 인천해양경찰서 항공대 소속 정모(49) 경사가 8일 오전 의식을 되찾았다.

정 경사는 전날 오후 10시부터 목포한국병원에서 5시간가량의 수술을 받고 이날 오전 3시께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병원의 한 관계자는 "수술이 잘 돼 의식은 회복했으니, 앞으로 2주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항공대에서 진화탐지기를 조종하는 헬기 전탐사인 정 경사는 전날 오후 3시 20분께 근무 교대를 마친 뒤 휴식을 취하던 중 두통과 다리 마비 증세 등을 보여 목포한국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의식을 잃었다. /윤다혜기자

“카네이션 단지 않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원들이 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아픔속에서 카네이션을 달 수 없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조자 부풀리고… 실종자 숨기고…

대책본부, 구조 172명으로 정정… 보름이상 감춰

세월호 침몰 범정부사고대책본부가 구조자 수 집계가 잘못된 사실을 알고도 보름이상 감춘 정황이 드러났다.

사고대책본부는 8일 "세월호 구조자는 애초 174명에서 172명으로 2명이 줄고 실종자는 2명이 늘었다"고 밝혔다. 현재 실종자는 35명이고, 탑승인원은 476명으로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탑승자, 구조자, 실종자 등 인력 현황을 바꾼 것은 이번까지 7차례에 달한다.

구조자 수가 줄어든 것은 화물기사 양모씨 등 2명이 중복 기재된데 따른 것이며 실종자 수가 늘어난 것은 명단에 없던 중국인 2명이 추가 확인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해경이 밝힌 중국인 탑승객은 지난달 21일과 23일 수습된 중국인 대비부부 이도남, 한금희씨다. 해경의 말대로라면 이미 사망자 수에 포함된 두 명을 갑자기 추가 실종자에 포함한 셈이다.

또 지난달 21일 양모씨가 중복신고한 인원으로 2명이 허수임을 알았다. 해경이 인적상황이 변동될 때마다 탑승인원을 바로 잡았다면 18일 476명, 21일 474명, 23일 476명이 돼야 한다.

그러나 해경은 이 과정을 모두 생략했다. 탑승자 혼선과 번복 등에 부담을 느낀 해경이 생존자 중복 집계로 2명이 늘자 이를 이용해 짜맞췄던 탑승자 2명을 포함했다는 의혹이 이는 대목이다. /최현돈기자

수사정보 흘린 해경 경사 대기발령

한국선급에 대한 비리를 캐고 있는 검찰의 수사정보를 미리 흘린 부산해경 직원이 대기발령 조치됐다.

부산해양경찰서는 8일 정보과 소속 A(41) 경사에 대해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감찰조사를 벌인다고 밝혔다. A 경사는 지난달 24일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이 한국선급 본사에 대한 1차 압수수색을 벌인다는 정보를 파악, 전날 한국선급 법무팀장에게 문자메시지로 귀띔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또 한국선급이 보유한 요트 회원권을 사용한 임직원의 기록이 담긴 해경자료 일부를 한국선급 측에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 경사를 상대로 검찰 내부정보 입수 경로, 수사정보 유출 내용과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김보준기자

교총, 학생안전망 캠페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2일부터 '온 동네 나서 우리 자녀 지키자'를 주제로 한 학생 안전망 구축 캠페인을 연중 전개한다고 8일 밝혔다.

교총은 정부와 학교는 체험중심의 안전교육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체험활동 도중 또는 체험활동 전후의 안전 요령과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상황 등을 담은 영상 안전 매뉴얼을 제작하고, 문자메시지로 학교에 교내 안전사고, 전염병과 같은 위기 관련 경보를 제공하는 위기관리경보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위기 상황 시 교사들이 일지적 안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학교 건물이나 교육활동 장소에 불안 요소가 있으면 즉시 대처할 수 있는 기구나 위원회를 만들자는 요구안도 내놓았다. /윤다혜기자

서울시민 25명 중 1명은 외국인

"함께 잘살자" 마스터플랜

서울시민 25명 중 한 명 꼴로 '외국인 40만 시대'를 맞은 서울시가 외국인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다(多)가치 서울 마스터플랜'을 마련했다.

조현옥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8일 "오는 20일 세계인의 날을 앞두고 외국인 주민과 함께 더불어 잘살아가자는 의미에서 이번 계획을 마련했다"며 인권가치 확산, 문화 다양성, 성장 공유, 역량 강화를 4대 축으로 14대 정책과제와 100개 사업을 공개했다.

시는 우선 외국인 인권 보호를 위해 본청에 외국인주민인권팀을 신설했다. 실직, 가정 불화로 당장 머물 곳이 없는 외국인 주민을 위한 쉼터도 동남·동북·서남·서북권 등 4개 권역별로 1곳씩 설치할 계획이다.

또 외국인 종합지원시설인 서울글로벌센터도 현재 1곳에서 2곳으로 늘린다. 민간은행과 협의해 송금 환전 수수료 할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김현문기자

부모님 은혜 끝이 없어라 어버이날인 8일 오전 청원군 강내면 은익문화재단지에서 조유형(80)씨가 오래된 상복을 입고 시유삼아 제안행사를 진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우이산호' 도선사 과속 결론

GS칼텍스, 기름 유출량 축소·은폐로 피해 키워

지난 1월 31일 전남 여수시 낙포동 GS칼텍스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우이산호 충돌 기름유출 사고는 수 도선사 김모(64)씨가 빠른 속력(7 노트)으로 접안을 시도하던 중 속력을 줄이려고 무리하게 방향을 바꾸면서 선박이 추진력을 제어하지 못해 충돌한 것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8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우이산호 주 도선사 김씨와 GS칼텍스 생산1공장장 박모(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우이산호 선장 김모(38)씨와 GS칼텍스 원유저유팀장 김모(55) 해무사 신모(47)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주 도선사가 우이산호 도선 종료(11:30 예정) 직후 다른 선박의 도선 일정이 예정돼 있어 다른 선박 도선을 위한 이동시간 등이 촉박해 과속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저장탱크 변동량을 토대로 한 기름 유출량은 926~1025.3㎘로 크게 늘었다. 애초 해경은 기름 유출량이 최소 655.4㎘에서 최대 754.4㎘에 달한다고 밝혔다.

해무사 신씨는 접안 예정 시각 이전에 부두에 도착해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접안 시 안전한 접안유도 등의 조치를 취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도선사 승선시각을 확인하지 않은 채 예정시각(09:15)보다 늦게 출근해 송유관 폐쇄 등의 비상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GS칼텍스 측은 위험물인 기름을 저장하는 옥외탱크 입구 밸브를 기름의 입·출고 시 외에는 폐쇄해야 하는데도 사고 당시 편의상 저장탱크 입구 밸브를 개방한 상태로 관리해 저장탱크 안에 있던 기름까지 유출되게 했다. 또 대량의 기름이 유출된 사실을 알고도 공장장 박씨의 지시로 언론 등에 유출량을 800ℓ로 유포하는 등 조직적으로 유출량과 유출을 축소·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사고 발생 다음 날 오후에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되는 등 전 정부적인 방제역량 동원에 지장을 초래해 해양오염 피해를 확산시켰다.

/이범진기자 bjlee@metroseoul.co.kr

전문대 7.7% 정원 감축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 신청한 전문대학이 자체적으로 입학정원을 평균 7.7% 감축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8일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접수결과 전국의 137개 전문대학 중 123개교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성화 사업 중 Ⅰ~Ⅲ 유형에 참여한 전문대학의 자율적인 정원 감축률은 평균 7.7%로 집계됐다.

사업신청 조건이 학위 과정 모집정원의 20~50%인 평생직업교육대학 사업에 참여한 11개교의 평균 감축률은 33%였다.

/윤다혜기자

'수천억 횡령' 강덕수 전 STX회장 구속

정관계 로비의혹 수사

샐러리맨 신화로 불린 강덕수(64) 전 STX그룹 회장이 재임 기간 2000억원 넘는 계열사 자산을 자신의 개인회사에 쏟아부은 사실이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는 8일 강 전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회장은 2841억원 배임과 557억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동안 2조3264억원 상당의 분식회계와 이를 이용해 9000억원의 사기성 대출을 해 1조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변모(61) 전 그룹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이모(50) 전 STX 경영기획본부장, 홍모(62) 전 STX조선해양 부회장, 김모(59) 전 STX조선해양 CFO 등 전직 그룹 임원 4명도 공범으로 구속기소했다. 강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47억원 등을 빌미로 한 정관계 로비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윤다혜기자

승부조작 씨름선수 실형

전주지법형사1부는 2012년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씨름선수 안태민(28)씨에게 징역 8월, 장정일(37)씨에게 징역 6월에 벌금 1300만원 및 추징금 1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동경기를 방해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점, 경기를 지켜본 국민과 시청자를 우롱한 점, 수수 금액이 많은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용호(30)씨에게는 징역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윤다혜기자

"평화열차 타고 왔어요" 8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 도착한 신동선 관광전용열차 '평화열차 DMZ 트레인(DMZ-train)'에서 내린 한 관광객이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 "경기장 폭력 엄정 대응"

목격자 확보·채증 자료 압수해 사법처리

경찰청은 8일 최근 프로야구 관객이 경기장에 난입하거나 선수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경기장 주변에서의 폭력행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관중의 경기장 난입과 오물 투척, 경기진행 방해 행위를 비롯해 선수와 심판 폭행 등이 발생했을 때 목격자를 확보하고 채증 자료를 압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구단과 시설 운영자 등과 함께 경기장 내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광주에서 열린 프로야구 경기 중 심판 판정에 불만을 품은 30대 남성이 경기장으로 내려와 1루 심판의 목을 뒤로 감고 폭행한 사건이 있었다. 지난 5일에는 인천에서 프로야구 경기 후 술에 취한 30대 남성 3명이 선수단 버스에 올라타 행패를 부리다 검거되기도 했다.

/윤다혜기자 ydh@

'정부학자금 공모' 수상작 발표

한국장학재단은 7일 '제6회 정부학자금지원 수기공모전 수상식'을 개최하고 12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1250만원을 수여했다.

올해로 6회째를 맞는 이번 공모전에는 1200여명이 응모했다.

수상자로는 ▲종합대상 서강대 이정우 ▲상급특별상 광주교육대학교 이승주 ▲최우수상(2명) 서울시립대학교 김연주·서강대학교 어설미 ▲우수상(4명) 홍익대학교 이동원·충북대학교 김용근·강남대학교 최지윤·원광디지털대학교 이서현 ▲장려상(4명) 전북대학교 변현욱·이화여자대학교 장은진·제주대학교 김명례·나사렛대학교 안예은씨가 각각 선정됐다.

관악구, 도서관 행사 개최

서울시 관악구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10일 관악문화관도서관에서는 인형극과 그림책 원예수업을 진행한다. 모든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해야하며 선착순으로 접수받는다.

영등포, 사회적기업 선정

서울시 영등포구가 서울시 선정 2014년 제1차 서울시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에서 영등포구 기업 3곳이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기업은 3년간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도로명주소 아이디어 공모

서울시 도봉구는 올해부터 전면 시행 중인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해 홍보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응모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선정된 아이디어는 향후 구의 도로명주소 관련 홍보에 사용된다.

www.seoulfood.or.kr

SEOUL FOOD 2014

서울국제식품산업대전 2014. 5. 13(화)▶16(금) KINTEX

전시참관 TIP

TIP 1	KINTEX 1은 B2B 전시회이므로, 식품업계 관련 종사자만 입장 가능(명함 필 지참) ※ 평 유아 초 중 고등학생 추부 등 일반인 입장 불가 KINTEX 2전시장은 B2C 전시회로, 모든 분들이 입장 가능
TIP 2	홈페이지에서 참가업체 및 위치를 사전 확인 후 효율적인 동선 파악 가능
TIP 3	무료 셔틀버스를 이용 하세요! • 승차지점 KINTEX 제 1전시장 3홀 입구 국기게양대 • 하차지점 KINTEX 제 2전시장 7A홀 좌읍 하역장
TIP 4	평균 관람 소요시간은 2시간 정도이므로, 폐장 2시간 전에 도착하셔서 전시회를 관람 해주세요.

■서울국제식품기기전 ■서울국제포장기자재전 ■서울국제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전 ■서울국제식품소재 및 첨가물전 ■서울국제건강기능 및 유기농전 ■서울국제디저트 & 음료전 ■국제관(SEOUL FOOD&HOTEL) ■그린마켓(GREEN MARKET) ■서울국제조리학교&학원전

| 주 최 | kotra | 공동주최 | KFIA ALLWORLD EXHIBITIONS kem

metro Chile

República Glaciar: celebró su primer matrimonio

metro Canada

L'homophobie plus répandue qu'on le croit

동성애 혐오증 으로 폭행 사례 많아

캐나다 퀘벡에서 동성애 혐오증과 관련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설문은 한 동성애자 이익대변 단체의 주도로 실시됐다. 설문 결과 2012년 5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총 256명이 동성애 혐오증을 가진 사람으로부터 954건의 폭행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동성애자 보호 단체는 "동성애 혐오증을 가진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거나 차별한 사례가 공식 통계를 통해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metro France

Moins d'alcool au vol

Sécurité routière

교통사고, 술보다 휴대전화가 문제

프랑스에서 지난 10년간의 교통사고 설정 인원이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들은 10년 동안 절반이 감소했다. 반면 교통사고 유발행동 가운데 2004년 18%에서 올해 34%로 그 비율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또 이들 중 42%는 핸즈프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18세부터 25세 사이의 젊은층에서 두드러졌다.

해발 3000m '얼음 공화국' 결혼식

수력발전소 건설 계획 맞서 그린피스, 환경보호·빙하 사랑 이벤트

"'얼음 공화국' 법에 따라 두 사람을 부부로 인정합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좋습니다."

칠레 중부의 눈 덮인 안데스 산맥, 최근 해발 3000m 빙하 위에서 '얼음 공화국'의 첫 결혼식이 열려 화제다.

이색 결혼식의 주인공은 니콜레 포소(27)와 엔리케 칸타(28). 국제 환경보호단체 그린피스 칠레지부 회원들이 결혼식의 증인으로 참석했다.

신랑 포소는 얼음 공화국 헌법 앞에 사랑을 맹세하며 신부를 바라봤다. 그러면서 이색 결혼식을 올리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자연을 증인으로 삼는 상징적인 결혼식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이 생각이 딱 떠올랐죠.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웨딩!"

결혼식에는 그린피스 사람들 이외에도 커플의 친구와 친척 등 총 30명의 하객이 참석했다. 이들 앞에서 두 사람은 결혼 서약서에 서명을 하고 반지를 교환했다.

얼음 공화국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국가다. 지구 온난화로부터 안데스 산맥의 만년설과 빙하를 지키려는 움직임 속에 탄생한 '환경 국가'에 불과하다.

특별한 결혼식이 이곳에서 진행된 이유는 얼마 전 발표된 수력 발전소 계획 때문이다. 칠레 정부는 이 빙하 지역에 수력발전소를 건설, 안데스 중앙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그린피스는 환경 문제에 대한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어내고, 빙하를 향한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 이벤트를 마련했다.

공화국의 대사를 맡고 있는 그린피스 칠레 지부장 마티아스 아순은 "이 커플은 바로 이곳에서 사랑과 희망의 몸짓을 보여줬다"면서 "빙하를 보호하는 법안을 칠레 정부가 만들어주길 바라는 기대가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미첼 바첼레트 대통령에게 우리의 뜻을 직접 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엘리자 가비노 기자·정리=조선미 기자

metro Brazil

Aos 10 ano

열 살 배기 작가님 세 번째 책 집필 중

브라질에서 열 살 배기가 작가로 데뷔해 화제다.

벨라 벨라 시의 데올림두 제일 시리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인 브레누는 읽고 쓰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 그에게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다면 열 살이라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벌써 두 권의 책을 썼다는 것이다. 언젠가 작가가 되기를 꿈꾸며 현재 세 번째 책을 집필 중인 그는 벌써부터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이다.

그는 "책 읽는 게 정말 좋아요. 책은 또 다른 제 친구들이라고 할 수 있죠"라며 "여섯 살부터 제 이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등장인물을 지어내면 꼭 제가 책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아 즐거워요"라고 집필의 즐거움을 밝혔다.

브레누의 어머니 에지니지 두스(44)는 자신의 아들이 항상 문학과 글쓰기에 흥미를 보여왔으나 이를 단순히 '어린 아이의 장난' 정도로 가볍게 여겨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들이 글쓰기에 소질이 있다는 것을 알고 나서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며 "지금 보니 정말 재능이 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브레누는 '아이스크림과 슬리퍼'와 '소녀, 자연의 손길'이라는 작품을 썼지만 이를 출판하지는 못했다. 비용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에 좌절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종이에 연필로 글을 썼어요. 하지만 제가 쓴 글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이제부터는 컴퓨터로 작성할 거예요"라고 천진난만하게 대답했다.

브레누는 글쓰기 이외에도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을 좋아해 "교육적인 책을 읽고 쓰는 게 좋아요. 저는 선생님도 되고 싶어요"라며 자신의 꿈을 밝혔다.

브레누는 현재 책을 출판하기 위해 투원자를 찾는 중이다. /정리=손은영 인턴기자

한 직장 재직기간 평균 2년 10개월 그쳐

직장인들이 한 직장에서 근속하는 기간이 평균 3년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최근 남녀직장인 854명을 대상으로 '한 회사 평균 재직 기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2년 10개월에 그쳤다고 8일 밝혔다.

경력 10년 이상인 직장인(129명)의 한 회사 평균 재직기간은 평균 4년11개월로 5년을 넘지 못했다.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직장인(246명)은 평균 3년 4개월에 그쳤다. 경력 5년 미만의 직장인(479명)은 한 회사에서 평균 2년 일했다고 답했다.

성별로는 남성 직장인의 한 회사 평균 재직기간은 3년4개월로 여성(평균 2년 5개월)보다 조금 길었다.

김화수 잡코리아 대표는 "한 회사에서의 업무 경력을 인정받으려면 최소 3년이상 일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지나치게 짧은 근무기간은 재취업할 때 조직 적응력이나 성실성 등의 면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국명기자 kmlee@

market index <8일>

코스피	1,959.60 (+10.72)	코스닥	541.99 (-3.48)
금리	2.85 (변동없음)	환율	1021.10 (-1.50)

30대 그룹, 수조원대 소송 '몸살'

피소 금액 9조6천억 규모… 삼성이 30%

국내 30대 그룹이 수조원대에 이르는 메머드급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들 그룹이 현재 손해배상 등으로 피소당한 소송 건수는 5400여 건, 소송가액은 9조6000억 원에 이르며, 10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송사에 시달리는 그룹도 절반인 15개에 달한다. 특히 전체 피소금액의 30% 가량은 삼성그룹 몫이다.

8일 CEO스코어(대표 박주근)가 국내 30대 그룹 189개 상장 계열사의 지난해 말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요 피소 건수는 5393건, 피소금액은 9조5803억 원이었다. 피소 한 건당 소송가액은 18억 원이었다. 이들 그룹 전체 계열사가 지난해 벌어들인 순이익 50조5000억 원의 19%나 되는 규모다.

30대 그룹 중 피소금액이 가장 많은 곳은 삼성이었다. 삼성그룹은 2323건의 주요 소송에 피소금액은 2조6947억 원이었다.

30대 그룹 전체에서 건수로는 43.5%, 금액으로는 28.1%의 비중이다.

삼성의 피소 금액 대부분은 2005년 삼성자동차 채권금융기관이 이건희 회장을 비롯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물산 등 28개 계열사에 제기한 위약금 지급 청구 소송이다. 채권단은 지난 2011년 삼성생명 상장 지연과 관련한 위약금과 연체 이자 등으로 2조2300억 원을 요구해 현재 대법원에서 심고심이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가 애플로부터 피소된 특허소송은 금액이 공시되지 않아 집계에서 제외됐다.

2위는 포스코그룹. 지난 2012년 신일본제철로부터 1조원 대의 기술 유출 소송을 당하는 등 총 피소금액이 1조388억 원(주요 소송건수 41건)이었다.

3위는 코오롱그룹이다. 미국화학업체 듀폰사가 코오롱인더스트리에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요구한 손해배상금 9500억 원이 대부분이고, 그 외 49건을 합쳐 총 피소금액이 1조 원이다. 하지만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승소하며 원심 파기 후 재심 판결을 받은 상태다.

4~5위는 현대그룹 9930억 원(60건), 대림그룹 5500억 원(139건)이다. 이어 대우건설(4900억 원, 179건)→현대자동차(4200억 원, 200건)→두산(3900억 원, 8건)→금호아시아나(2190억 원, 91건)→LS(2160억 원, 36건)그룹 순으로 피소 금액이 컸다.

또 동부(2020억 원), 한화(1710억 원), LG(1580억 원), KT(1350억 원), 현대중공업(1130억 원) 등도 피소금액이 1000억 원을 넘었다.

/김유근기자 ksu@metroseoul.co.kr

팬택 '베가 아이언2' 출시

팬택이 차세대 전략 스마트폰 '베가 아이언2'를 8일 공개하며 위기 타개에 나섰다.

팬택은 이날 상암동 팬택 R&D 센터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12일부터 베가 아이언2를 이동통신3사를 통해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준우 팬택 대표는 "지난해 말까지 지속된 대규모 적자로 많은 분들이 팬택이 이대로 끝나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지만 지난 1~2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베가 아이언2 발표 이후 '팬택은 여전히 강력하다'는 말이 회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베가 아이언2는 블랙바디계열은 골드컷, 레드컷, 실버컷 등 3가지, 화이트바디계열은 샴페인 골드, 로즈 핑크, 샤이니 실버 등 3가지의 총 6가지 컬러로 출시돼 이용자 선택의 폭을 넓혔다.

아울러 5.3인치 대화면에 퀄컴 스냅드래곤 801 프로세서, 3220mAh 스마트폰 최대 용량 배터리, 7mm대 두께와 152g의 무게로 한 손 사용성이 강화됐다.

/이재영기자 ljy0403@

현대차 브랜드 체험관 개관 현대자동차가 현대차 최초의 브랜드 체험관인 현대모터스튜디오를 서울에 개관한다. /현대차 제공

북미보다 5만원 싼 소니 스마트폰

최첨단 성능 스펙에도 원화 강세 영향

8일 소니가 최신 스마트폰 '엑스페리아 Z2'를 국내에 출시하자 업계가 술렁거렸다. 가격을 79만9000원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와 유럽보다 저렴한 것으로 북미의 경우 831 달러(아마존 기준), 우리돈으로 약 84만9300원이며 유럽은 600 유로, 약 85만3000원이다.

한국에 풀린 소니의 첨단 스마트폰이 5만원가량 저렴한 셈이다. 유명 브랜드가 각축을 벌이는 북미 시장보다 싼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를 놓고 업계에서는 소니가 최근 국내 환율 시장의 분위기를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날 원·달러 환율은 1022.5원에 마감하면서 2008년 8월 이후 처음 1020원대로 떨어졌다.

환율이 떨어지는 것은 원화 가치가 올랐다는 이야기인 만큼 수입 상품의 가격은 싸진다.

'엑스페리아 Z2'의 첨단 스펙을 감안하면 이같은 가격은 더욱 놀랍다.

동급 최고 수준의 방진·방수 기능을 적용해 변기나 세면대에 기기를 떨어뜨려도 고장이 나지 않는다.

207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 스마트폰 최초의 디지털 노이즈 캔슬링 기술, 밝고 풍부한 색감의 소니 TV 디스플레이 기술, 스크린을 두 번 터치해 스마트폰을 깨우는 탭투웨이크, 배터리 절전 기술, 스태미너 모드 등 상품성이 전작에 비해 향상됐다.

/서상훈기자 ssh@

뉴스&뉴스

금화로 만든 시계 9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에비뉴엘에서 열린 제5회 워치&주얼리 컬렉션에서 시계 전문가 바비론 콘스탄틴이 메타에 다르 코인워치 '가든데'를 비롯한 다양한 시계를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두산, KFC사업 매각

● 두산 자회사인 DIP홀딩스는 사모펀드인 CVC캐피탈파트너스가 운영하는 '펙스토랑 인베스트먼트 아시아 B.V.'와 SRS코리아 지분 100%를 매각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고 8일 공시했다.

SRS코리아는 KFC 사업을 하는 두산 계열사다. 매각 금액은 1000억원으로 양사는 6월까지 양도작업을 마무리하고 거래를 완료할 계획이다.

/박이란기자 ran0720@

골프존 끼워팔기 과징금

●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장 점주에게 특정 영상기기를 끼워팔기 한 골프존에 과징금 43억40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골프존은 스크린골프 시스템을 판매하는 업체로, 2012년 기준 4700여개(점유율 61%) 스크린골프 연습장이 골프존 기기를 사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스크린골프 기기 세트를 판매하면서 영상기기인 프로젝터를 지정된 2~3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존이 공급하는 프로젝터(275만원)와 동급 모델을 인터넷 쇼핑몰(175만~335만원) 등 다양한 유통채널을 통해서도 살 수 있는데 특정 제품을 기본모델로 지정해 끼워팔기를 했다는 설명이다.

/송주열기자 ...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인·편집인	남궁호
사장·편집인	김종혁
편집국장	조인호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959-2100
독자센터	02)721-9771

2005년 6월 8일 창간 ...

저축은행 불황 터널 빠져나올까

1분기 영업실적 개선 · 자산건전성은 걸림돌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이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며 영업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체율이 증가하는 등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자산건전성들이 불황을 벗어나려는 저축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다.

8일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86개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한 '2013 회계연도 1~3분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기간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440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 8964억원의 손실을 기록한 것에 비해 적자폭이 4563억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당기 순손실이 줄어든 것은 저축은행의 구조 조정으로 부실 여신이 줄어들면서 대손충당금 전입액이 3039억원 줄어든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적자 저축은행도 모두 41개사로 지난해 보다 13개 줄었다.

특히 올 1~3월 중 저축은행의 당기순손실은 237억원으로 지난해 1•2분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산규모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인 수익성이 개선된 가운데 중형 저축은행들의 미익이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1000억원 미만 소형 저축은행은 전년동기 대비 당기순손실이 61억원에서 90억원으로 다소 커졌다.

소유구조별로는 대주주가 개인이거나 일반기업인 저축은행은 이익을 낸 반면 예금보험공사, 금융지주사 등 금융기관 소유 저축은행은 적자를 기록했다.

재무현황을 살펴보면 3월말 기준 저축은행들의 총자산은 37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말 대비 1조200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총부채가 33조9000억원으로 1조7000억원 감소하고, 자기자본이 3조8000억원으로 5000억원 증가해 전체적인 재무 상태는 다소 개선된 모습을 보였다.

국제결제은행(BIS)자기자본 비율은 SBI계열 저축은행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힘입어 지난해말 대비 1.99% 포인트 상승한 13.15%를 기록했다.

문제는 이들의 연체율이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저축은행 업계에 먹거리를 제공하겠다며 '저축은행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역량을 갖춘 저축은행에 펀드·보험·신용카드 등 금융상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 업계도 중·저금리대 신용대출 시장 공략 등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활로를 모색하고 있지만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3분기 저축은행 대출 연체율은 20.4%로 지난해말과 비교해 0.2%포인트 악화됐다. 특히 가계대출 연체율이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1.1%p 상승했다.

같은 기간 기업대출 연체율은 PF대출 등 부동산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0.4%p 하락했고, 고정이하여신비율도 21.2%로 0.5%포인트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기순손실이 축소되고 BIS 비율이 상승하는 등 일부 영업실적이 개선됐다"며 "특히 자산 1000억~500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이나 개인 또는 일반기업 소유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손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일부 저축의 영업실적이 호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연체율 등 자산건전성은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다"며 "향후 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노력을 적극 지원해 저축은행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금융 중개 기능을 활성화 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미란기자 olive2C03@metroseoul.co.kr

휴가철 화분관리 이렇게…

전순이 주부 경제학

향긋한 복바람 산들산들 불면 가족과 주말나내 캠핑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자연을 벗 삼아 요리도 즐기고 야외에서 하룻밤을 보내면 일상에서의 스트레스를 날리기에 충분하다. 온 가족이 여행을 떠나 집을 비울 때면 가장 마음이 쓰이는 것은 바로 '화초'다. 집을 며칠 비우고 매일 물을 주지 않으면 화초들은 곧 죽는다. 작은 화분 속에 남아 있는 수분만으로는 말라죽기 십상이다.

우선 집을 장기간 비울 때는 화분은 직사광선을 받는 베란다를 피해야 한다. 햇빛이 들어오는 거실 안쪽에 들여 놓아야 한다.

주말을 이용한 짧은 휴가라면 물을 흠뻑 주면 된다. 그러나 휴가가 길어질 때는 화분을 모두 목욕탕에 모아두고 목욕탕 문을 열어둬 통풍이 되면서 습기가 오래 가도록 한다.

또 화분 옆에 물을 가득 담은 양동이를 갖다 놓고, 물에 적신 수건을 화분 흙과 양동이 물에 걸쳐 두면 좋다. 이렇게 하면 모세관 현상에 의해 물이 조금씩 공급되기 때문에 화초가 말라 죽지 않는다. 물을 담은 그릇에 화분을 담아 화분 밑으로 조금씩 물을 빨아들이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화분에 물을 준 후 신문지를 물에 적셔 흙 위에 올려놓는다. 이렇게 하면 흙이 수분이 더디게 증발된다. 이밖에 페트병에 작은 구멍을 뚫어 화분 위에 한방울씩 물이 떨어지도록 하거나 화분 자동급수기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다.

/장민지기자 [illegible]

HD보다 4배 선명한 스마트폰 LG디스플레이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5.5인치 스마트폰용 쿼드HD AH-IPS LCD 패널 제품이 미국 세계적 인증기관인 유럽 넴코로부터 국제인증을 획득하고, 제품 양산에 돌입했다. /LG디스플레이 제공

가격 낮춘 펜트하우스, 잘나간다

수십억 호가 옛말… 5억원대 분양가도 나와

지난해부터 불어온 아파트 꼭대기층의 '펜트하우스' 청약 열풍이 올해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수도권·지방을 불문하고 분양되는 펜트하우스마다 수십 대 1의 높은 경쟁률로 순위 내 마감 행진을 벌이고 있다.

8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서울 강동구 고덕동서 선보인 '고덕 래미안 힐스테이트' 펜트하우스는 7.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평균 경쟁률 1.54대 1을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해당 아파트 최고 청약률이기도 하다.

또 화성산업이 대구 침산동에서 분양한 '화성파크드림' 펜트하우스가 1순위에서 3.7대 1로 마감했고, 최근 중흥건설이 세종시 3-2생활권 M4블록에 공급한 '중흥S-클래스 리버뷰2차'도 11.3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선호도 높은 중소형보다 펜트하우스가 먼저 마감되는 단지까지 등장했다. 유승종합건설이 인천 구월 보금자리지구 S-2블록에 분양한 '한내들 퍼스티지' 펜트하우스는 4가구 모집에 9명이 접수해 마감됐지만 전용면적 84㎡는 순위 내 모집 가구수를 채우지 못했다.

현대건설이 서울 양천구 신정4구역에 공급한 '목동 힐스테이트' 역시 펜트하우스 2가구에 5명이 몰려 1순위에서 청약을 끝냈다. 반면,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84㎡의 일부 타입은 미달됐다.

주택시장 침체로 청약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던 펜트하우스가 이처럼 인기있는 주거상품으로 변신한 배경에는 '고급형'에서 '보급형'까지 제품들이 다양해지면서 이를 찾는 수요층이 넓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몇 년 전까지 펜트하우스는 초고가 대형아파트로 지어져 수요층이 한정돼 있었다"며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들이 면적을 줄이고, 가격을 낮춘 보급형 펜트하우스를 공급하면서 보다 많은 수요자들이 흡수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침산 '화성파크드림'과 구월 '한내들 퍼스티지'의 펜트하우스 가격은 각각 7억원대, 5억원대다. 대우건설이 위례신도시에 분양해 163대 1로 마감한 '위례 그린파크 푸르지오' 펜트하우스도 9억원대였다. 한때 수십억원을 호가했던 가격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천덕꾸러기 신세로 전락했던 펜트하우스가 요즘에는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산옥기자 [illegible]

민영, 소형주택 건설의무 폐지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민영주택에 대한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소형 건설 의무제가 폐지되는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등록 건설사업자나 주택조합 등)가 보유한 땅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 전역과 경기·인천의 일부) 안에서 이런 규모의 민영주택을 지으려면 전체 건설 가구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이런 의무를 폐지해 주택 면적별 공급 비율을 민간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역·직장 주택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가운데 조합원이나 종업원에게 공급하는 모든 주택을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로 짓도록 한 것을 앞으로는 전체 건설 가구수의 75% 이상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도록 했다.

/김두희기자 [illegible]

삼성SDS, 연내 상장한다

이달 대표주관회사 선정… 글로벌 ICT서비스 기업 도약

윤심우 삼성SDS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삼성SDS가 이달 중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하고 연내 기업공개(IPO)에 나선다고 밝혔다

삼성SDS가 8일 이사회를 열고 연내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윤심우 삼성SDS 커뮤니케이션팀 전무는 이날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해외사업 확대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서비스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이번 상장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상장은 이달 중 대표주관회사를 선정한 뒤 구체적인 추진일정과 공모방식 등을 결정해 진행할 계획이다

윤 전무는 "구체적인 상장 일정은 이달 중 결정되는 주관회사와 상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연내에는 상장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대기업 계열 IT서비스 업체들은 공공 IT프로젝트에 참여가 제한돼 왔다

이 때문에 삼성SDS 역시 지난해 국내 공공시장과 대외 금융IT시장 철수를 선언하고 해외물류 IT, 모바일 등 글로벌 사업 확대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삼성SDS가 지난해 추진한 삼성SNS와의 합병 역시 이런 취지에서 이뤄졌다

실제로 국내 공공시장 참여 제한으로 국내 성장이 위협받고 있는 시점에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 출현, IBM·액센추어와 같은 글로벌 사업자의 영향력 등을 고려, 과감한 혁신이 절실한 상황에서 삼성SDS는 글로벌 사업구조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이번 상장을 결정했다

이번 상장을 통해 자금력을 끌어올린 뒤 신성장 영역에서 글로벌 기술과 인력을 확보하고 최첨단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확충하며, 국내외 M&A 및 사업 제휴를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의 페이스북 및 트위터, 중국의 웨이보 등 IT기업들도 기술 개발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확보 및 자본조달의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 상장을 추진한 바 있다

윤 전무는 "기존에는 국내 사업만 하다보니 여유도 있고 굳이 상장에 대한 의지가 없었지만 글로벌 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다보니 자본확충, 글로벌 사업 제휴 등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서라도 상장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상장 이후 사외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고, 적극적인 IR 활동으로 대외 신인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전동수 삼성SDS 사장은 "이번 상장을 계기로 글로벌 ICT서비스 선도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며 "클라우드, 빅데이터, IoT 등 신성장 기술을 확보해 통신, 헬스케어, 리테일 및 호스피탈리티 분야의 솔루션 및 서비스를 중심으로 해외사업을 적극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삼성家 이재용 체제 굳히기

후계구도 정리 실탄 분석

삼성SDS가 8일 연내 상장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번 결정이 삼성그룹의 후계구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삼성SDS의 상장 결정이 이재용(사진) 삼성전자 부회장 후계구도에 힘을 실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하는데 약 4조~5조원의 상속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SDS 상장에 이 부회장의 자금 확보로 이어지면서 이를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재벌닷컴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삼성SDS 지분은 최대주주인 삼성전자가 22.58%, 이 부회장이 11.25%, 이부진 사장 3.9%, 이서현 사장 3.9% 등 이건희 회장 일가가 나눠 갖고 있다

특히 지난해 삼성SDS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삼성SNS를 흡수 합병하면서 이 부회장의 지분율은 높아지고 이부진·이서현 사장의 지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자금 확보 비중도 상대적으로 늘어났다. 삼성SDS는 지난 7일 기준 장외 거래가격 14만9500원으로, 기업가치는 10조802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가는 삼성SDS 실제 상장 가격이 9만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으나 상장 후 상승세를 이어가 14만원 이상에서 형성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삼성SDS 상장으로 인해 최대 1조2000억원 수준의 차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 확보에 삼성SDS 상장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삼성SDS의 상장 결정은 해외사업 성장을 위한 대규모 자본 확보와 삼성그룹 내 후계구도를 굳히는 두가지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illegible]기자

환율하락 비상 걸린 한국 경제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030원 아래로 내려갔다. 8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022.6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불과 하루 전인 7일 연 저점인 1022.5원보다 0.1원 오른 수치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000원을 밑돌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이후 원화 가치는 주요 30개국 통화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했다"며 "최근 5거래일간의 절상 속도가 유지된다면 원·달러 환율이 곧 1000원에 도달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전자, 조선, 철강 등 국내 대표적인 수출주도형 산업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야별로 알아본다.

선박수주 급감… 우려 수준

외환보유액 10개월째 사상 최대 한국은행은 지난 4월 말 현재 외환보유액이 3558억5000만 달러로 한 달 전보다 15억 달러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연합뉴스

철강/조선

환율하락으로 철강업계와 조선업계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철강재 수출 비중이 40%에 달하는 포스코는 일부 수출 경쟁력 약화가 있을 수 있지만 포스코를 포함한 대다수의 철강업체들은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를 싸게 수입할 수 있어 원가 절감의 호기로 보고 오히려 환율 하락을 반기고 있다.

철강협회 관계자는 "쇳물의 주원료인 철광석과 석탄 등을 수입하는 철강업계는 환율이 하락하는 만큼 원가를 절감 할 수 있어 큰 효과를 볼 것"이라며 "원화 강세로 철강업체들은 수익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조선업체들도 원화 강세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등 국내 대표 조선업체들은 환율 변동 리스크 방지 차원에서 1997년 외환위기(IMF 사태) 이후 환헤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장은 환율이 떨어져도 크게 영향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원화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면 수주 경쟁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특히 올해 조금씩이지만 회복 조짐을 보이던 국내 조선업계 수주실적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조선업체들은 환율 하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실정이다.

해운·조선 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조선업계의 선박 수주량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84.8%나 급감했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국내 조선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향후 환율 하락이 계속될 경우, 업계의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두탁기자 kimdt@

금리 동결 우세 속 인하론 '고개'

금융

원화 강세 파장 고려

원·달러 환율이 5년9개월래 최저 수준으로 하락한 가운데 9일 열리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달에도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지만, 원화 강세가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금리 인하론도 거론되고 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다수 전문가들은 "한은의 기준금리가 5월에도 현 수준(2.5%)에서 동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기준금리 조정 요인이 뚜렷하지 않은데다 주요국의 금리결정을 지켜봐야 한다"며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올해 4월까지 11개월 연속 동결했다.

지난달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서 한 금통위원이 '경기회복세가 가시화되는 적절한 시점에 금리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아직은 국내 경기 회복세가 미약하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전민규 한국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금리를 내릴 이유도 올릴 이유도 없다"면서 "1990년대 일본이 구조적인 경기 악화를 무시하고 전월비 수치만 보다가 실기했듯이 한국도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석한다면 지표를 잘못 읽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여삼 KDB대우증권 이코노미스트도 세월호 참사에 따른 소비·투자심리 위축을 근거로 들며 "한은은 보수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면서 "한은의 예상대로 경기와 성장 흐름이 움직인다는 전제 하에서 올해 4분기는 돼야 금리 인상을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일부에서는 환율 하락 추세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준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원화 강세가 지속되면 수출 경기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더 나아가 한국 경제 회복세에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 시장에 통화 유동성이 확대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된다"면서 "금융당국이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금리 인하 카드를 고려해 볼 수도 있다"고 전했다. /김현욱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원·달러 환율이 일시적으로 1000원을 밑돌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전자,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수출 전략품목의 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연합뉴스

전자업계 변동폭 '예의주시'

전자

전자업계가 환율 변동에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삼성전자는 환율이 10% 하락하면 분기 순이익이 7300억원, LG전자는 1000억원이 줄어든다.

다만 환율이 하락하더라도 가격 경쟁력은 떨어지지만 원자재 가격도 함께 하락하기 때문에 다소 영향은 희석될 전망이다. 특히 결제 통화가 달러가 아닌 유로화나 위안화 등 다변화돼 있어 당장 심각한 타격을 받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원율 하락이 장기화되면 타격은 심각할 수 있어 전자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에도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실적이 크게 감소한 경험이 있는 만큼 이에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글로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개별회사의 환위험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도 "환율 변동에 일희일비하기 보다 본질적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역시 지난 1분기 환율 영향과 주요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가전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3% 가량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번 환율 급락 추세에 대한 방안을 살피는 한편, 환율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환율 하락으로 인한 영향이 크지 않아 상황을 보면서 대응해갈 마련 중"이라며 "외화자산과 부채 균형을 유지하는 데 주력 중이고 현지생산 기지 구축 등 대안 마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영기자 ljy@

수출주력 현대·기아차 타격 '불보듯'

자동차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완성차업계에도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생산량의 대부분을 수출하는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에도 우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대기아차는 올 초 사업계획에서 연평균 원·달러 환율을 1050원으로 시장 예상(1060원)보다 보수적으로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7일 원·달러 환율이 1022.5원으로 마감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떨어질 때마다 현대차는 1200억원, 기아차는 800억원의 손실을 입고 있다.

이와 관련 이원희 현대차 재경본부장(부사장)은 2014년 1분기 경영실적 컨퍼런스 콜에서 "원·달러 환율의 하락과 신흥국의 환율 상승 등 환율 리스크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들이 발생해 수익성 개선 폭이 둔화됐다"며 "하반기에는 1분기에 급등한 신흥국의 환율이 정상궤도를 찾아가고 판매 법인들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과거와 같이 한 방향으로 장기간 움직이지 않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장단기 사업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최근 들어 이와 같은 경향이 심화돼 3~6개월 후의 환율 전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금융위기 이전, 이후 원·달러 환율 변동을 비교하면 2005~2007년에 1.12%이던 것이 2010~2012년에는 2.24%로 높아졌다. 환율 변동성이 심해지면 투자 및 수출의 불확실성이 커져 경기를 위축시킨다. 특히 수출기업의 경우 채산성 관련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해 수출물량을 축소하거나 채산성 하락 또는 환헤지 비용 등을 수출단가에 전가시켜 수출가격 상승에 따른 수출물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행 분석에 따르면 환율변동성이 1단위 증가하면 우리나라 총 수출물량 증가율은 0.15% 포인트 가량 하락한다. /정이혁기자 [illegible]@

tvN
회춘누아르
꽃할배
수사대
평균나이 70세
짱짱맨 할배들이 떴다!
오늘 밤 9시 50분 tvN 첫 방송
제작 SSD 이순재, 변희봉, 장광, 김희철, 이초희 김응수, 박은지

왼쪽부터 프린세스 메이커, 학교2014 반갑다 친구야, 퍼즐버블

엄마·아빠때는 이거하고 놀았어 !

퍼즐버블·프린세스 메이커…'추억의 게임' 귀환 눈길

추억의 게임들이 속속 귀환하고 있다.

1990년대 오락실을 주름잡았던 게임들은 물론이고 PC방 시절의 향수를 깨울 수 있는 게임들도 눈길을 끌고 있다. '가정의 달'을 맞아 자녀·친구들과 함께 한다면 또 다른 추억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

◆'뽀뽀'의 재미 그대로

오락실의 '추억'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버블버블'을 모바일로 즐길 수 있다. 구미코리아가 최근 선보인 '퍼즐버블'은 오락실 게임 '버블버블'의 모바일 버전이다. 주인공인 공룡이 같은 색의 물방울을 모아서 터뜨리는 원작의 재미를 그대로 맛볼 수 있다. 특히 모든 버블을 없애는 미션, '버블 속 작군을 구하는 미션' 등 90여종 이상의 스테이지를 추가해 게임성을 높였다. 게임 도중에 등장하는 특수 물방울 등 다양한 방해요소도 긴장감을 더한다.

시간제한이 없기 때문에 초보자도 손쉽게 게임의 재미에 빠져들 수 있다.

◆'딸 바보'의 귀환

1990년대 게이머들을 '딸바보'로 만든 전설의 PC게임 '프린세스 메이커'도 모바일로 변신했다. 지난 2일 썸게임이 출시한 '프린세스메이커 포 카카오'는 출시 하루 만에 카카오 게임하기 인기 순위 1위에 오르며 '딸바보' 열풍을 또다시 일으킬 조짐이다.

이같은 인기는 나만의 딸을 개성있게 키우는 기존 게임의 재미에 3D그래픽을 이용해 캐릭터 커스터마이징과 표정 변화에 깊이를 더한 덕분으로 분석된다. 특히 카카오 게임하기의 다른 이용자와 벌이는 딸 키우기 경쟁의 재미도 빼놓을 수 없다.

기존 프린세스메이커의 스케줄 관리, 무사수행 등의 콘텐츠도 게임하는 재미를 더한다.

◆학창시절 추억 가득

'수학의정석', '성문종합영어' 등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저인도 등장했다. CJ E&M 넷마블의 '학교2014 반갑다 친구야'는 게임 속에 동창찾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무너져가는 학교를 전학생이면서 학생회장이 된 주인공이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만화 같은 게임 줄거리 속에서 모바일 동창회를 여는 것이 가능하다. 학교 이름을 입력해 실제 동창들을 별도 친구로 추가해 동아리를 만들고 소식을 전할 수 있다. 덕분에 구글 플레이 인기 무료 1위에 오르며 게이머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김승호기자 kmies@metroseoul.co.kr

게임 규제로 NHN엔터 매출 14% ↓

게임 규제 여파로 메이저 게임사의 매출이 적지 않게 감소했다.

NHN엔터테인먼트는 8일 1분기 매출 1521억원, 영업이익 223억원, 순이익 150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 분기 대비 매출은 7.1%, 영업이익은 16.8% 하락했으나 당기순이익은 87.7% 늘었다. 매출이 줄었지만 지급수수료 및 마케팅 비용 등 주요 영업비용이 함께 감소했고 순이익은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수익과 관계사 투자이익의 증가로 상승했다.

1분기 게임 매출을 부문별로 살펴보면 PC온라인이 1028억원으로 70%, 모바일이 443억원으로 30%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국내 게임 매출이 985억원으로 67%, 해외 매출이 486억원으로 33%의 비중을 보였다.

2월 24일부터 실시된 웹보드 게임 규제 여파로 관련 게임 이용 지표가 3월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고 매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분기 중 실제 규제가 반영된 것은 1개월 남짓 기간이지만 PC온라인 게임 부문 매출이 전 분기대비 13.9% 감소했다.

NHN엔터테인먼트 정우진 대표는 "웹보드 게임 규제 영향과 PC게임 유저 감소로 실적이 하락했지만 라인 디즈니 츠무츠무, 와라편의점, 가디언스톤 등이 연이어 히트하는 등 국내외에서 모바일 게임 사업이 성장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채성욱기자

NC, 유니폼에 게임 로고

NC다이노스 유망주들이 엔씨소프트를 알린다.

NC다이노스 프로야구단이 엔씨소프트의 게임포털 서비스 '플레이엔씨(plaync)' 로고가 새겨진 퓨처스리그 유니폼을 7일 공개했다.

새 유니폼은 정규리그와는 별도로 퓨처스리그에서만 착용한다. 상의는 NC 다이노스의 고유 컬러인 마린블루에 모기업 엔씨소프트의 게임포털 서비스 브랜드명인 'plaync' 로고를 부착했다. 하의는 백색과 유색 2종으로 홈·원정을 구분한다.

유니폼 상의 정면에는 엔씨소프트와 plaync 로고, 왼팔에는 엔씨소프트의 기업정신인 우주정복 로고, 후면에는 엔씨소프트가 발간하는 모바일매거진 버프(BUFF) 로고가 붙어있다.

NC다이노스는 2014 시즌 개막 경기부터 '우주정복(Conquer the Space)' 로고가 부착된 타자 헬멧을 착용하고 있다.

류현진·추신수 스마트폰서 '플레이'

게임빌 'MLB 퍼펙트이닝' 라이선스 취득

게임빌은 8일 MLB 정식 라이선스 대작 'MLB 퍼펙트이닝'(사진)을 전 세계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 출시했다.

이미 해외 시장에서 야구 게임으로 정평이 나 있는 게임빌이 MLB 콘텐츠를 장착해 세계 시장 공략에 나서 주목된다.

게임빌은 앞서 미국 MLBAM (Major League Baseball Advanced Media), MLBPA(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국내 게임사는 물론 해외 게임 기업이 MLB 관련 라이선스를 모두 취득해 모바일게임으로 만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초 게임빌은 몇 년 전부터 MLB를 설득하는 작업을 해왔다. 하지만 모바일게임이라는 콘텐츠에 익숙하지 않은 MLB 사무국 측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지난해 류현진-추신수 듀오가 MLB에서 맹활약하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고 모바일 게임이 MLB의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 프로젝트가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MLB 퍼펙트이닝'에는 총 30개 MLB 구단과 실제 소속 선수가 총출동한다.

국내 프로야구를 기반으로 한 이사만루 시리즈의 엔진을 장착한 이 게임은 실제 선수들의 고유 모습과 동작을 디테일하게 반영했다. 실제 북미 지역과 한국에서 진행된 비공개 테스트에서도 이와 같은 유저들의 호응을 확인한 바 있다.

MLBPA 마이크 아민 이사는 "게임빌에서 전 세계 모바일게임 팬들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준 높은 게임을 선보였다. 야구 팬들에게 권해도 손색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LBAM 제이미 리스 부사장은 "글로벌 야구 팬들이 사랑하는 팀과 선수로 즐길 수 있는 게임 'MLB 퍼펙트이닝'에 주목하라. 깊이 있는 게임을 만드는 게임빌 덕분에 전 세계 어디서나 다양한 기기로 즐길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채성욱기자

관절 및 인대 질환, 신경통증, 디스크 질환 등 만성 통증

진화된 신개념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및 도수 치료로 끝!

유명 여배우 S양의 아버지 S씨는 평소 우측 팔꿈치 내측 건초염으로 여러 병원에서 인대 증식 주사, 체외 충격파 치료, 줄기세포 주사, 스테로이드 주사 등으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효과가 오래 가지 않고 자주 재발해 병원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 수술이 두렵고 주변 사람들의 반대도 심해 결국 S씨는 비수술적인 치료를 위해 S양과 같은 방송에 출연중인 가수 K씨와 방송인 G씨의 소개를 받아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에 내원했다.

담당 주치의인 최현우 강남초이스병원 홍대점 원장은 우측 주관절 내측 건초염 및 척골 신경염으로 S씨의 상태를 진단하고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치료받았던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로 S씨를 치료했다. 또 인대 치료 주사를 통해 염증을 치료하고 부종을 제거했으며 치료 후 S씨의 상태는 바로 호전됐다.

이와 함께 S씨는 완벽한 재활을 위해 강남초이스병원의 핵심 치료인 도수운동재활치료센터에서 체계적인 3차원 생역학적 도수치료, 인대 및 근육 강화 운동치료를 주 2회씩 2개월간 받았다. 현재 S씨는 일상생활에 불편 없이 직장생활을 잘하고 있다.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치료 위한 시스템 구축

이처럼 1년 전부터 시행한 강남초이스병원의 인대 및 신경 치료는 기존의 인대 증식 및 스테로이드 주사와는 다른 치료법이다. 일반적인 인대 질환뿐만 아니라 재발되거나 오래된 인대 질환, 신경 및 관절염까지 치료가 가능하다. 게다가 스테로이드에 의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고 가격이 비싸고 치료 결과가 불확실한 줄기세포 주사의 단점을 극복한 치료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 수많은 유명 연예인 및 스포츠 스타들이 주로 찾아 이름이 알려진 강남초이스병원은 환자의 질환·나이·증상에 따른 치료를 시행한다. 내원 환자에 따라 인대 증식 또는 유전자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실시하는 것.

특히 강남초이스병원은 질환의 재발 방지 및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 환자 1명을 전문의, 도수치료사, 운동치료사, 물리치료사 4명이 전담하는 통합 진단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 치료를 선진 체계화했다.

더욱이 손으로 경직된 근육과 인대를 부드럽게 해주면서 잘못 자리잡은 척추관절과 뼈를 바로 잡는 도수치료와 첨단 컴퓨터 장비를 이용한 무중력 감압치료, 약화된 관절·근육 및 인대를 강화시키면서 척추 및 관절을 안정시키는 운동치료를 통해 환자의 빠른 회복을 돕고 있다.

현재 강남초이스병원은 지하철 서울대입구역 인근 본원 외에 여의도역, 교대역, 홍대입구역 부근에 목, 허리 및 어깨 통증 치료, 체형교정(일자목, 골반 불균형·휜 다리, 족만증 등) 전문 치료클리닉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전문 클리닉은 3차원 생역학 디스크 및 관절 치료센터, 인공과 인대 치료 및 재생센터를 설립해 합리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문의 서울대 본원 02)875-2200, 홍대점 02)336-2200, 여의도점 02)786-2200, 교대점 02)525-2900

/황재용기자 hsoul38@metroseoul.co.kr

외식업계 "여성 야구팬을 홀려라"

눈도 입도 즐기기… 新 소비형태 정착

프로야구가 개막한지도 어느덧 한달여가 지났다. 매 경기 각 구단의 순위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날씨가 좋은 5월, 경기장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고 있다. 경기장을 찾는 재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경기를 관람하며 즐기는 먹거리다.

최근 야구장을 찾는 여성팬들이 점점 늘면서 치킨이나 피자 등 기름진 패스트푸드 일색인 야구장 먹거리를 피해 칼로리는 낮추고 맛은 더한 웰빙 도시락을 직접 준비해오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스시도시락부터 호텔 쉐프의 수제 도시락까지 맛과 영양을 두루 갖춘 외식업계의 테이크아웃 메뉴들이 야구장을 찾는 여성관객들에게 새로운 야구장 먹거리로 주목 받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도시락은 저칼로리 스시도시락이다. 회전초밥레스토랑 스시로는 야구장에서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누름초밥 도시락'(사진)을 선보여 고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야구장에서도 '제대로' 된 든든한 한끼 식사를 원한다면 신세계의 프리미엄 식품관인 'SSG 푸드마켓'에서만 구매할 수 있는 조선호텔 도시락이 있다. 호텔 쉐프가 직접 조리한 프리미엄 럭셔리 도시락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간단하게 허기만 채우고 싶다면 본도시락의 샐러드 메뉴가 제격이다. 싱싱한 야채 위에 부드럽고 고소한 계란을 올린 '에그 샐러드'와 '블랙페퍼돈까스 샐러드', '케이준 치킨 샐러드'까지 총 3가지 종류로 개당 3200원과 4500원의 부담 없는 가격이다.

샐러드보다 더 가볍게 배를 채우고 싶다면 풀코리아의 '후룻볼'을 추천한다. 파인애플, 트로피칼, 복숭아 총 3가지 종류인 '후룻볼'은 100% 과일주스에 과일을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크기로 넣은 웰빙제품이다.

경기장에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골수 팬들에게는 한 손에 들고 먹는 샌드위치를 추천한다. 중독성 강한 리코타 치즈로 미식가들 사이에 입소문이 난 카페마마스의 '청포도샌드위치'는 가격대비 알찬 구성으로 샌드위치 하나로도 충분한 포만감을 느낄 수 있다.

최근 한식의 새 문화를 만들어가며 인기를 끌고 있는 밥버거도 야구장 먹거리로 제격이다.

/장윤희기자 unee@metroseoul.co.kr

'요우커(游客)', 日 누르고 마트 점령

사상 첫 백화점·면세점에 이어 '큰 손'으로

중국 관광객이 백화점과 면세점에 이어 사상 처음으로 일본 관광객을 누르고 국내 대형마트에서도 큰 손으로 떠올랐다.

8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이 겹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6일까지 9일 간 외국인 매출을 집계한 결과 중국인 매출이 일본인 매출을 1.5배(72.0%) 이상 넘어섰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전년도 매출과 비교해도 중국인 관광객 매출은 51.5% 늘었지만 일본인 매출은 37.6% 감소했다.

올해 들어 지난 6월까지 롯데마트의 중국인 매출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인 매출을 21.8% 넘어섰다. 과거 중국의 휴무일, 명절 등에 따라 매출이 엎치락뒤치락 한 적은 있지만 누계 매출로 중국인 매출이 일본인 매출을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마트 측은 설명했다.

특히 롯데마트를 찾은 중국인과 일본인 관광객의 소비 성향도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롯데마트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1인당 평균 구매액은 6만5000원 정도로 일본인 관광객의 4만6000원보다 41% 가량 높았다.

/이학철기자 kbec@metroseoul.co.kr

편의점 택배, 월요일이 제일 바빠

편의점 CU(씨유)가 지난해 택배(포스트박스) 이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주일 중 금요일 이용률이 가장 낮았으며 반면에 월요일 이용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월요일이 2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화요일 17.7%, 수요일 16.6%, 목요일 15.7%, 금요일 14.8%로 '월고금저(月高金低: 월요일이 가장 높고 금요일로 갈수록 가장 낮음)'의 양상을 보였다는 것이다.

월요일 이용건수가 가장 많은 이유는 주말의 영향이 크기 때문으로 회사 측은 설명했다.

발송자와 수신자 모두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말이 끝나는 월요일에 배송 물량이 상대적으로 몰린다는 것이다. 실제 주말 택배 이용 비중은 토요일 8.3%, 일요일 6.6%에 그쳤다.

/김보배기자 hyune0@metroseoul.co.kr

BAT, 던힐 크리스프 시판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이하 BAT 코리아)가 오는 11일 상큼한 맛의 캡슐이 장착된 14개비 포켓팩 담배인 '던힐 크리스프'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던힐 엑소틱'에 이어 출시되는 두 번째 캡슐 제품이다. 지난 4월 출시된 던힐 엑소틱은 당시 한국 시장에서 찾아볼 수 없는 14개비 포켓팩 및 색다른 맛의 캡슐을 적용했다.

/정성일기자

"색다르고 건강한 먹거리로의 여행"

메트로신문은 창간 12주년을 맞아 독자여러분의 건강하고 맛있는 먹거리를 위해 메뉴판닷컴과 공동으로 매주 금요일 가정에서도 쉽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레시피를 연재합니다. 메뉴판닷컴(www.menupan.com)은 맛집, 요리 전문 포털사이트로 웹 메뉴판닷컴과 모바일 전국 맛집 등 1000 아이쿠폰 등의 매체를 보유·운영 중입니다. 독자 여러분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편집자주]

5월은 어버이날, 스승의 날 등 항상 감사한 분들께 마음을 표현하는 기념일이 많은 달이다. 바쁜 일상을 핑계로 기성품이나 상품권 등으로 대체했다면 이번에는 마음을 담아 직접 만든 우리네 전통 떡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 받는 이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는 떡 레시피를 소개한다.

◆단호박떡케이크(2인분)

난이도 보통 / 열량 645kcal / 조리시간 60분

-주재료 멥쌀가루 400g, 단호박 1/8개

-부재료 키위·말린대추 각 1개, 방울토마토 7개, 밀감통조림 1/4캔, 체리·딸기 각 2개, 잣·호박씨 약간

-양념 설탕 40g

1. 멥쌀은 깨끗하게 씻은 뒤 상온에서 8시간 물에 불린다. 물빼기를 한 멥쌀에 적당량의 소금을 첨가한 뒤 한번 빻아 놓는다.
2. 단호박은 4등분으로 잘라서 껍질을 제거하고 속의 씨를 꺼낸 뒤 푹 익도록 식히고 여기에 찐 단호박을 넣은 후 다시 한번 빻아 고운 가루로 만든다.
3. 설탕을 섞은 가루를 원형 케이크틀이나 사각형 케이크틀에 면보를 깔고 안친다.
4. 시루에 설탕틀을 넣고 스팀을 이용해 35~40분 가량 면보자기를 덮어 찐다.
5. 케이크틀 떡을 받침에서 분리한 후 실온에서 식히고 키위 등 부재료를 얹어 장식한다.

◆꽃부꾸미(2인분)

난이도 보통 / 열량 187kcal / 조리시간 30분

-주재료 찹쌀 4컵

-부재료 물 1.5컵, 식용유 약간, 대추 5개, 밤 1개, 석이버섯 3장, 쑥잎 적당량, 팥앙금 150g

-양념 소금 2작은술, 꿀 2큰술

1. 찹쌀은 3~4회 깨끗이 씻은 후 물에 8~12시간 정도 담갔다가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뺀 후 분량의 소금을 넣고 가루로 빻는다.
2. ①을 끓는 물로 익반죽해 직경 6~7cm 정도 되도록 둥글 납작하게 빚는다.
3. 팥앙금은 직경 1.5cm 정도가 되도록 둥글게 만들어 둔다.
4. 밤은 껍질을 벗긴 후 곱게 채를 썰고, 대추는 돌려 깎아 씨를 뺀 뒤 곱게 채썬다.
5. 석이버섯은 미지근한 물에 담갔다가 깨끗이 비벼 씻어 배꼽을 떼고 물기를 없앤 후 채썬다.
6. 팬에 기름을 두르고 만든 반죽을 넣어 한면이 익으면 뒤집어서 가운데 팥앙금을 넣고 반을 접어 지진 후 그 위에 쑥잎 등을 장식하고 꿀을 발라낸다.

◆밤단자(2인분)

난이도 어려움 / 열량 230kcal / 조리시간 60분

-주재료 찹쌀가루 4컵, 밤 10개

-부재료 유자껍질 1개, 꿀 3큰술

-양념 올리고당 40g, 소금 약간

1. 찹쌀가루를 체에 내리고 물을 고루 뿌려 찜통에 안치고, 김 오른 찜통에서 25분간 쪄낸다.
2. 유자는 소금으로 문질러 깨끗이 씻어 껍질만 얇게 벗겨 곱게 다지고, 밤은 삶아서 껍질을 벗겨 체에 내린다.
3. 잘게 다진 유자껍질을 밤고물의 1/2과 섞어 꿀 1큰술과 버무린 뒤 밤톨만하게 둥글려 빚는다.
4. ①의 떡은 절구에 쳐서 찰지게 치댄다.
5. 도마에 꿀 1큰술을 바르고 떡을 쏟아서 두께 1cm, 폭 6cm로 기름하게 펴놓는다.
6. ⑤ 위에 ③의 유자소를 얹고 떡을 빚어서 막대 모양으로 만든 다음 3cm 정도씩 손으로 끊는다.
7. ⑥의 떡을 둥글게 빚어 꿀 1큰술을 바르고 밤고물을 고루 묻힌다.

실용적 아이템이 대세

가정의 달 선물 트렌드 변화 바람

5월 각종 기념일에 선물을 통해 감사의 마음을 전하지만 최근 아이와 부모 모두에게 실용적인 아이템이 각광받는 등 선물 트렌드가 변화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은 인기 선물 아이템 중 하나다. 본격적인 야외활동이 많은 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순한 자외선 차단제가 선물로 유용하다.

에뛰드의 '수딩 선 로션'은 SPF 50의 자외선 차단제로 UVA와 UVB를 동시에 차단해 장시간 야외 활동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이다.

또 어린 자녀와 함께 하는 나들이가 많아지는 가정의 달에는 나들이용 육아용품 선물도 인기다. '게우니아 패클 바람' 기저귀 가방은 미국 유명 디자이너 드네 존스가 직접 디자인한 화려한 패턴의 백팩 모양이라 패션 아이템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가족 모두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아이템도 선물로 좋다. 셀바이오텍의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듀오락 골드'는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6종과 함께 비타민 6종이 들어 있어 별도로 비타민을 챙기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고 연령 구분 없이 온 가족이 섭취 가능하다.

/정혜인기자

뷰티업계, 콜라보레이션 활발

한정판 소장가치 높아 인기

최근 뷰티업계에 아티스트와의 콜라보레이션이 마케팅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다. 콜라보레이션이란 다른 두 개 이상의 브랜드끼리 혹은 예술 전문가들과 브랜드가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시선을 끌 수 있어 많은 업체들이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기존 제품이나 신제품에 아티스트의 작품을 입힌 한정판은 소장 가치가 높고 경쟁 제품과 차별화를 꾀할 수 있다. 슈에무라는 최근 사진작가 미카 니나가와와 협업을 통해 '미카 컬렉션'(사진 왼쪽)을 출시했다. 미카 니나가와는 '원더랜드'라는 가상의 공간 속 ▲호기심 ▲금단의 연애 ▲노래하는 숲 ▲달콤한 꿈 등 4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선명한 색감과 독창적인 감수성이 담긴 패키지 디자인을 선보였다.

에뛰드하우스는 진주알 팔은 매직 애니 쿠션에 장착해 새로운 디자인을 적용할 수 있는 전용 케이스 '신데렐라 콜라보레이션'을 한정 출시했다. 이 케이스에는 신데렐라의 모습은 물론 유리구두, 시계 등 신데렐라를 상징하는 다양한 소품들이 한데 어우러진 디즈니의 신데렐라 디자인이 적용됐다.

토니모리의 경우 아티스트 서바이벌 프로그램 '아트스타코리아'를 공식 후원하며 프로그램 출연자 중 하나인 아티스트 찰니와 함께 비비 씨데이션 콜라보 한정판을 출시했다. 아트스타코리아의 콜라보레이션 서바이벌 미션을 통해 만들어진 이번 한정판은 찰니의 강렬한 색감과 위트 있는 이미지로 특유의 자유로운 감성이 표현됐다.

또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브랜드 가치를 전달하고 브랜드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다. 최근 브랜드 리뉴얼을 단행한 뷰티 멀티플렉스 스킨알엑스는 디자이너 에디강과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 아트웍을 제작했다. 에디강이 디자인한 새 브랜드 아트웍 이미지는 요정을 모티브로 해 언제나 주변에 존재하는 자연처럼 늘 고객과 함께하며 고객을 말하는 스킨알엑스의 브랜드 모토 'SKINRx on you'를 반영해 탄생했다.

실제로 협업을 통해 매출이 크게 신장되는 경우가 많다. 이탈리아의 패션 브랜드 '오주르 르주르'와의 콜라보레이션으로 탄생한 헤라의 '오주르 르주르 컬렉션'(오른쪽)은 지난달 1일 출시 직후 단 5일만에 매출 120억원을 달성하고 전년 동기 대비 수량기준 105% 성장률을 보였다. 특히 'UV 미스트 쿠션'은 눈과 입술 모양의 패턴이 큰 인기를 끌며 출시 전부터 사전예약 1만개를 기록하고 출시 하루 만에 단일 품목 매출 7억원을 올리기도 했다.

/정혜인기자 hjung6404@metroseoul.co.kr

GD웨딩, 미스코리아 웨딩패키지 시즌2 출시

웨딩패키지 선발대회

GD웨딩(www.gdwedding.co.kr)은 고객 맞춤형 웨딩패키지인 '미스코리아 웨딩패키지 시즌2'를 출시했다. 이 패키지는 고객이 스튜디오와 드레스, 헤어·메이크업을 자유롭게 선택해 취향대로 구성할 수 있는 패키지다. 패키지 안에는 스튜디오 원규, 달빛스무터, 드레스 알렉산드라 라포엠, 헤어와 메이크업 김선진규로에 라끌로에 등이 마련돼 있다.

또 패키지 출시를 기념한 이벤트도 진행한다. 고객 선호도 조사를 겸하는 이번 이벤트는 고객이 투표 심사위원이 되어 가장 많은 고객의 선택을 받은 웨딩패키지가 진 선 미가 된다. 진 선 미에 선정된 웨딩패키지를 선택한 고객 전원에게는 각각 100만원, 50만원, 30만원의 상금이 지급된다. 당첨자 발표는 6월 4일이다. 문의 02)3446-3201 /정혜인기자

핸드드립 커피 무료 세미나

메트로신문·어라운지 공동…24일 진행

메트로신문이 가정의 달을 맞아 국내 최대 커피 유통 전문 브랜드 '어라운지(Aroun2)'와 '가족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핸드드립 커피 세미나'를 무료로 진행합니다.

이 세미나는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어라운지 선유도점에서 열립니다.

2012·2013 WBC 국가대표 바리스타 선발전 3위에 입상한 어라운지 소속의 백상욱 바리스타가 핸드드립 커피의 기초 이론부터 실습까지 깊이 있게 교육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향긋한 드립커피를 즐기는 법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메일(coffeearoun2@naver.com)에 간단한 인적 사항(이름·연락처)과 신청 이유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12명을 선정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13일까지며, 당첨자 발표는 5월 15일 개별 통보됩니다. 기타 문의 전화 070-7115-0326

metro Aroun2

국화 성분 추출 살충제 살충제 브랜드인 '홈키파 홈매트'가 9일 서울 세종로에서 '홈키파 청정의 비밀' 출시 행사를 열었다. 이 제품은 국화의 일종인 제충국에서 추출한 100% 천연 살충 성분인 피레트린(Pyrethrin)을 사용했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홈키파 홈매트 제공

'로보카폴리 플레이파크' 시즌3 개장

교통안전 등 체험교육 놀이터

인기 애니메이션 '로보카폴리'의 배경인 '브룸스타운'을 현실로 재현한 '로보카폴리 플레이파크' 시즌3가 오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새롭게 문을 연다(매주 월요일 휴관).

이번 시즌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 놀 수 있는 건강놀이터 ▲구조대 훈련 등의 용감한 미션 체험 ▲무선 미니카를 활용한 교통안전 체험 ▲부모님과 함께 쿠키와 배지를 만드는 패밀리 스쿨 ▲영상으로 폴리를 만날 수 있는 브룸스 극장 등 5개 테마의 놀이시설이 마련됐다. 또 현장 관람객 대상으로 클립미드와 함께하는 온 가족 해외여행 응모 이벤트 등 다양한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홈페이지(www.poliplaypark.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6219-3311

/정하철기자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에서 신영옥이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선율에 맞춰 이태리의 가곡 '입맞춤'을 선사하고 있다(왼쪽). 바이올리니스트 임지희가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연주하고 있다(오른쪽). 사진/[illegible]

마음 어루만진 감동의 '힐링' 음악회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한 5월 어버이날 공연
부모 의미 되새기며 세월호 희생자 가족 애도

어느 해와 달리 국민적인 큰 슬픔을 안고 맞게 된 어버이날. 아름다운 신영옥의 목소리와 클래식 선율이 가족 관객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졌다.

소프라노 신영옥과 함께하는 5월 어버이를 위한 음악회가 어버이날인 8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렸다. 매일 아침 출근길의 동반자인 메트로신문이 창간 1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사랑과 관심에 보답하는 의미로 마련한 자리다.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연주와 여자경 음악감독의 지휘로 펼쳐진 이날 음악회는 공연장이 꽉 찬 가운데에서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한편 슬픔에 젖은 마음에 위안이 되고 희망을 주는 '힐링' 곡들로 꾸며졌다.

음악회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애도하고 추모하는 뜻에서 진중하고 애잔한 선율이 인상적인 그리그의 '솔베이그의 노래'로 막을 열었다.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연주한 이 곡이 끝난 뒤 연주자들과 관객은 박수를 치는 대신 앉은 자리에서 묵념하며 희생자의 명복을 빌었다.

이어 이 시대 가장 아름다운 리릭 콜로라투라 소프라노로 꼽히는 신영옥이 아무 장식도 없는 검정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했다. 그는 심금을 울리는 목소리로 애련하고 구슬픈 선율의 '아베 마리아'를 불러 희생자의 넋을 달랬다.

본 공연은 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오페라 '비앙카와 페르난도' 중 '평안하세요 아버지' 등 부모님에 대해 노래하는 곡들로 채워졌다.

1부 중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임지희가 등장해 생상스의 '서주와 론도 카프리치오소'를 선사했다. 이 곡은 바이올린 연주자의 화려한 기교와 개인기가 돋보이는 작품으로 연주가 끝나자 관객은 큰 박수를 보냈다.

프라임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아름답고 비극적인 선율로 연주한 오페라 '마농 레스코' 중 간주곡이 2부의 시작을 알렸다. 이후 신영옥이 영화 '파리넬리'에 삽입돼 유명해진 오페라 '리날도' 중 '울게 하소서'를 애절하게 불러 관객의 눈시울을 적셨다.

2부의 협연자로는 하피스트 김아람이 나서 글리에르의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E장조, 작품74'를 연주했다. 러시아의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음악성이 잘 나타난 곡으로, 관객은 하프의 몽환적인 선율을 들으며 지그시 눈을 감았다.

정덕수 시인이 쓴 서정적인 가사가 인상적인 '한계령'이 신영옥의 목소리와 만나 울려퍼질 때에는 공연장이 숙연한 분위기마저 감돌았다. 관객은 숨을 죽이며 '저 산은 내게 우지 마라 우지 마라 하고'로 시작되는 구슬픈 노랫말에 귀를 기울였다.

이태리의 가곡 '입맞춤'이 이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했지만 관객은 공연장을 떠나지 않았다.

몇 분간 이어진 앙코르 요청에 신영옥은 다시 등장했고 "많이 힘드신 부모님들께 위로를 건넨다"고 세월호 희생자 가족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며 드보르작의 '어머니께서 가르쳐주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눈물을 훔치며 노래를 잇지 못하다 목이 멘 목소리로 불러 객석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이날 공연장에는 80대 노모를 모시고 온 중년의 아들, 아이와 함께 온 젊은 부부 등 많은 가족 관객이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경기 용인 수지에서 자녀, 손녀와 함께 온 이영준(71·남)씨 부부는 "신영옥씨의 아름다운 목소리에 감탄했다. 세월호 참사로 마음이 어둔데 '한계령'을 들을 때 가슴이 메었다"라고 말했다. /박진영기자 sah6427@metroseoul.co.kr

하피스트 김아람이 글리에르의 '하프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E장조, 작품74'를 연주하고 있다(위). 관객들이 이른 시각부터 공연장을 찾아 매표소 앞에 길게 줄지어 서 있다(아래). /손진영기자 son@

metroentertainment

프로 무대 첫 발 디딘

박시환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 4전5기 끝에 '슈퍼스타K5'(이하 슈스케)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박시환(27)이 가수의 꿈을 이뤘다. '슈스케' 시즌1부터 5까지 참여하며 간절함으로 노래했던 그의 노력이 결실을 본 것이다. 무대에서 볼트를 꽉 쥐며 노래를 불렀던 박시환이 데뷔앨범 '스프링 어웨이크닝'을 발표했다.

◆ 끝없는 도전의 결실

부산 항만의 중장비 정비공이었던 박시환은 평범했던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건설현장, 편의점, 택배회사 등에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가수에 대한 꿈과 열망은 접지 않았다. 이 때문에 박시환은 케이블채널 엠넷 '슈스케'의 시즌1부터 시즌5까지 모두 문을 두드렸던 도전자로 유명했다.

시즌4까지는 예선의 문턱조차 넘지 못했지만 시즌5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자신의 실력을 인정받았다. 박시환이 가수의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원동력은 무엇일까. 배로 노래를 좋아하는 형이 있어서다.

그는 "가끔 노래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도 했지만 인디밴드에서 활동하던 형 덕분에 가수가 되겠다는 끈을 놓지 않았다"며 "지금은 요리사로 일하고 있지만 형이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 데뷔앨범 최고 제작진 참여

박시환은 데뷔앨범부터 음악적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박근태·김이나·심현보 등 국내 최고의 작곡·작사진이 참여한 박시환의 첫 앨범에는 타이틀곡 '다만 그대를'을 포함한 3곡의 신곡이 담겼있다.

타이틀곡 '다만 그대를'은 브릿팝 기반의 미디엄 템포 팝 록 장르다. 리드미컬한 반주 위에 떠난 여자를 그리워하는 남자의 심정을 박시환의 섬세한 음색과 감정으로 표현한 곡이다. 고 김광석의 '사랑했지만'의 후렴구를 샘플링해 아날로그 감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박시환은 "노래를 듣자마자 정말 부르고 싶다는 마음과 함께 신인 가수인 내가 '사랑했지만'이라는 곡을 샘플링한 '다만 그대를'을 불러도 되나 싶어 내가 불러도 되느냐고 물어봤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그대를'의 감성을 표현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창법도 달라졌다. 기존 방송에서는 이야기하듯 노래하다가 후반부에 지르는 록 발라드를 많이 불렀지만 이번 타이틀곡은 가볍게 던지는 듯 불렀다"며 "가장 새로운 부분은 이를 시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음악적인 변화 이외에도 외적으로 많이 달라졌다. 체중을 10kg 감량한 것은 물론 평소 즐겼던 술과 담배를 끊었다. 그는 "외적인 면부터 내적인 면까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오고 싶어서 지난 5개월 동안 식단조절과 운동, 노래 연습만 하면서 살았다"며 "2개월 전부터는 하루 한갑정도 피웠던 담배도 끊었다"고 말했다.

인디 출신 형 덕분에 꿈 이뤄
데뷔 앨범부터 신선한 도전
"사랑 받는 가수 되고싶다"

◆ 소극장 공연으로 팬에 보답

박시환은 출중한 외모와 가창력 덕분에 데뷔 전 팬덤까지 생겼다. 지난달 12일 박시환의 첫 데뷔 무대인 SBS MTV '더 쇼'을 이뤄운 케이팝 사전 녹화장에는 300여 명의 팬이 몰려 깜짝 보드 팬미팅이 열리기도 했다. 현재 팬클럽 회원수는 6000명을 넘었다.

그는 "첫 녹화가 끝나고 집에 들어가 가수로서 목표를 다시 한번 생각했다. 팬들 덕분에 가수가 됐고, 그들에게 자랑스러운 가수로 남고 싶다"며 "주변에 박시환이라는 가수를 소개할 때 '노래 잘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소감을 피력했다.

"팬들에게 항상 감사할 뿐이다"는 그는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 팬들과 가까운 곳에서 소통할 수 있는 소극장 공연을 자주하고 싶다"며 오래도록 노래할 수 있는 가수가 되겠다고 했다.

/탐원준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영화에서, 브라운관에서, 그리고 무대에서 '화성연쇄살인사건'은 아직도 현재진행형!
5년만에 다시 무대
원작 연극!
날 보러와요
미스터리 추리극
황금연휴 특별할인!
4월29일(화) ~ 5월11일(일)공연에 한하여 전석 40% 할인!
2014. 3.27THU → 6.1SUN 아트센터K 세모극장
1544-1555
1544-6399

꽃할배 수사대 /CJ E&M

마스터셰프코리아 /CJ E&M

아트스타코리아 /CJ E&M

어디서 봤더라? 여전히 美·日 따라하는 TV

해외서 히트한 프로그램 베끼기 손쉽게 시청률 확보하려는 '안일'

해외 유명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베껴 만드는 형태가 여전해 시청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9일 첫 방송을 앞둔 tvN '꽃할배 수사대'의 시놉시스를 살펴보면 지난 2012년 일본 TBS에서 방영한 드라마 '어린이 경찰'과 유사하다. '꽃할배 수사대'는 하루아침에 70대 노인으로 변한 젊은 형사들과 20대 엘리트 경찰이 원래의 몸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그릴 예정이다. '어린이 경찰'은 잠년의 노련한 경찰들이 어린이로 변했지만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두 드라마 모두 특수 화학 물질에 의해 몸이 변한다는 점과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한 과정을 그린다는 부분이 비슷하다. 또 이들을 돕는 20대 젊은 경찰 한 명이 함께한다는 점까지 판박이다.

프로그램 베끼기는 연예·오락 프로그램에서 흔히 볼 수 있다. 현재 스토리온에서 방영 중인 '아트스타 코리아'는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 작가들이 경합을 벌여 우승자를 가린다는 점이 미국 브라보TV '워크 오브 아트'와 비슷하다. 논란 발생 이유도 똑같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을 확립하기 어려운 현대미술의 특성상 탈락자 결정에 따르는 논란은 이미 방송 시작 전부터 예정된 일이었다. MC 역시 전문가가 아닌 여배우를 기용했다는 것마저 유사하다. 앞서 '워크 오브 아트 2'는 할리우드 여배우 재이미 조가 MC를 맡았으며 '아트스타 코리아'는 정려원이 사회를 맡고 있다.

드라마를 예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마니아층을 형성하며 여러 명의 케이블 스타를 탄생시킨 tvN '더 지니어스' 시리즈는 일본에서 드라마와 영화로 제작된 '라이어 게임'과 닮아있다. 폐쇄된 공간에 갇힌 게임 참가자들이 모니터에서 흘러나오는 명령에 따라 게임을 진행한다는 콘셉트부터 게임 설명 그래픽 게임의 내용까지 흡사하다. 드라마에선 게임의 패배자가 상당한 금액의 부채를 떠안지만 '더 지니어스'에선 탈락하는 것으로 일단락된다.

물론 포맷을 정식으로 구입해 제작하는 경우도 있다. '프로젝트 런웨이 코리아', '도전 슈퍼모델 코리아', '마스터셰프 코리아' 등은 포맷을 수입해 온 경우다. 하지만 이에 앞서 유사한 내용의 카피캣 프로그램이 제작된 바 있다. 국내 오디션 열풍을 몰고왔던 '슈퍼스타K'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메리칸 아이돌'을 따라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이 같은 베끼기가 끊이질 않는 원인에 대해 일각에선 이미 해외에서 성공한 사례를 가져와 시청률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지민기자 lenakim@metroseoul.co.kr

'연애'로 두근거리는 예능

'두근두근' '연애고시' 익숙하지만 신선

MBC 연애고시

MBC '우리 결혼했어요'부터 종편채널 JTBC '마녀 사냥'까지 TV 방송에서 사랑은 가장 대중적인 소재다. 최근 새로 등장한 두 개의 파일럿 예능 프로그램도 다르지 않다. KBS2 '두근두근 로맨스 30일'(이하 '두근두근')과 MBC '연애 고시 - 연애조난자 구출프로젝트'(이하 '연애고시')는 기존 연애 리얼리티 방송을 조금씩 변형해 시청자의 연애 세포를 자극하고 있다.

'두근두근'은 '이상형과 30일 동안 연애를 시켜준다'는 매력적인 제안으로 시작된다.

프로그램은 '우리 결혼했어요'와 SBS '짝'의 중간 형식을 따른다. 세 연인의 데이트 녹화 장면을 스튜디오에 있는 5명의 진행자가 보면서 서슴없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건 '우리 결혼했어요'를 연상시킨다. 이상형을 만나 시간을 보내며 계속 만날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는 출연진의 모습에선 '짝'이 떠오른다.

그러나 일반인과 유명인의 적절한 조합이 프로그램의 경쟁력이다. 송영석 한의사와 최민지 플로리스트는 30대 직장 남녀의 연애 방식을 보여준다. 김주경 축구 코치와 정다은 KBS 아나운서는 30대의 열정적인 사랑을 그린다. 유일한 20대 커플은 배우 박준규의 아들인 박종찬과 연기자 지망생인 김지안이다. 두 사람은 첫 만남부터 말을 놓고 '여행을 가고 싶다'는 등의 솔직한 발언으로 진행자들과 시청자의 이목을 끌었다.

이명길 연애 코치는 '두근두근'을 타 연애 예능과 차별화할 수 있는 전문가다. 그가 연애에 대한 시청자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고 방송을 극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면 '두근두근'의 정규 편성도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8일 첫 방송이 된 '연애고시'는 연애에 매번 실패하거나 연애가 어려워 '연애 조난자'라 불리는 연예인들을 위한 솔로 탈출 프로젝트다.

단순한 남녀 짝짓기가 아니라는 점이 신선하다. 방송은 스튜디오에서 남녀의 심리를 알아보기 위해 여러 상황을 재연하면서 진행된다. 진편우, 노홍철, 배지영은 남녀의 심리를 대변하며 연애 조난자인 동료 연예인들의 조언자로 활약할 계획이다.

문경태 PD는 "고시 과정을 통해 남녀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며 본인의 이상형을 찾아가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 /염휴진기자 leonhj@

'무한도전' 차세대 리더는 누구?

'선택 2014' 본격적인 선거운동 시작

'무한도전'(사진)의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0일 MBC '무한도전'은 앞으로 10년간 프로그램을 이끌 차세대 리더를 선출하는 '선택 2014'의 후속편을 방영한다.

이날 방송에선 '무도 리더' 후보에 출마한 멤버 여섯명 전원이 각자의 공약에 맞는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본격적인 선거 활동을 펼치는 모습이 그려질 예정이다.

이미 정형돈은 MBC 에브리원 '주간 아이돌'을 통해 인연을 쌓아온 아이돌 인맥을 동원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로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지난 7일 그룹 비투비 멤버들은 트위터에 "'무한도전'의 '차세대 리더' 후보 기호 '나' 정형돈을 전폭 지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무한도전'을 보장할 격식없는 후보! 가식없는 후보! 정형돈을 함께 지지해주십시오"라고 밝혔다. 이어 인피니트의 성규와 우현, 걸그룹 시크릿 혁사 김형돈 공개 지지에 나섰다.

'선택 2014'의 선거일은 22일이며 이에 앞서 17~18일 이틀간 사전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다. 투표 시간은 6·4 지방선거와 똑같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소는 전국 10개 주요도시에 설치되며 온라인 투표도 병행된다. /김숙현기자

god 9년 공백 넘은 국민그룹

신곡 '미운오리새끼' 차트 장악

12년만에 완전체로 돌아온 god가 국민그룹 다운 위엄을 발휘하고 있다.

데뷔 15주년 기념 프로젝트로 발매된 '미운오리새끼'가 각종 음원 차트 1위를 장악했다. 8일 정오에 공개된 god의 '미운오리새끼'는 발매 1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멜론 소리바다 지니 몽키3 벅스 등 거의 모든 음원 사이트에서 1위에 올랐다.

음원차트뿐 아니라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도 god와 미운오리새끼가 검색어 차트 정상을 재지하고 있는 것은 물론 SNS에서도 god 컴백과 음원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며 9년의 공백을 무색케 했다.

9년 만의 신곡인 '미운오리새끼'는 히트메이커인 이단옆차기의 작품으로 트렌드나 새로움 보다는 god 특유의 감성적인 버벌으로 그려낸 god표 발라드다.

한편 1999년 1집 '챠퍼 원'의 타이틀 곡 '어머님께'로 데뷔한 god는 2002년 5집 '챕터5'를 마지막으로 윤계상이 하차해 박준형 데니안 손호영 김태우 4명의 체제로 활동을 이어왔다. 2005년 7집 '하늘속으로' 이후 활동을 중지하고 개인활동을 펼쳐왔다. /황성운기자 ysw@

장동건 "'아저씨' 원빈과 달라"

'우는 남자' 제작보고회… 액션 비교에 재치 대응

8일 '우는 남자'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장동건, 김민희, 이정범 감독(왼쪽부터) 뉴시스

영화 '우는 남자'에서 강렬한 액션 연기에 도전한 장동건이 '아저씨'에 출연한 원빈과의 비교에 재치 있게 대응했다.

장동건은 8일 압구정 CGV에서 열린 '우는 남자' 제작보고회에서 "'우는 남자'와 '아저씨'는 같은 감독이 만들었기에 정서가 비슷한 점은 부정할 수 없지만 주인공의 삶과 캐릭터, 액션 콘셉트가 다르다"고 차이를 강조했다.

그러나 이내 "한편으로 '아저씨'와 많이 달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농담 삼아 감독에게 다음에는 3부작으로 원빈과 함께 '우는 아저씨' 하는 게 어떻겠냐고 제의했다"고 말해 폭소를 자아냈다.

장동건은 "일주일에 4일, 하루 5~6시간씩 체력과 액션 훈련을 받았다"고 그간의 노력을 설명한 뒤 "살의 탈의를 노려볼까 했는데 몸 만드는 노하우가 부족해 촬영이 끝날 때에야 멋진 몸매가 완성됐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톱스타 고소영과 결혼해 딸과 아들을 키우는 장동건은 이날 제작보고회에서 고민도 털어놔 눈길을 끌었다. 그는 "가장 장동건과 배우 장동건의 선택이 가끔 충돌할 때가 있다. 그럴 때 딜레마에 빠지는데 현명하게 잘 선택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10여 년간 이렇다할 흥행작을 내놓지 못한 장동건은 "사실 개인적으로 흥행에 굉장히 목말라 있다. 잘됐으면 좋겠다"고 속내를 고백하기도 했다.

'우는 남자'는 이정범 감독이 한국 액션 영화의 패러다임을 바꿨다는 평가를 받은 '아저씨' 이후 4년 만에 연출하는 작품이다. 전작에서 원빈과 호흡을 맞췄던 이 감독이 이번엔 장동건과 만나 화제가 되고 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던 킬러 곤(장동건)이 조직의 마지막 명령으로 목표물 모경(김민희)을 만나고 임무와 죄책감 사이에서 갈등하며 벌어지는 일을 그린다.

이번 영화에서 모경 역할을 맡아 모성애 연기를 펼친 김민희는 "사실 처음에는 할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했다. 그러나 모성이라는 감정은 엄마가 돼야지 느끼는 감정은 아니라고 생각했다. 친구나 남자친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모성애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전작인 '아저씨'의 흥행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다 개봉 뒤에는 '아저씨'와 더불어 '우는 남자'가 다음 작품에 부담을 줄 것이라 생각한다"고 흥행을 자신했다.

/이효원기자 lhh0427@metroseoul.co.kr

왕비 니콜 키드먼 내달 상륙

칸 개봉작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 상영

올해 칸 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된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가 다음달 국내 관객과 만난다.

14일 개막식을 통해 칸에서 최초로 공개되는 이 영화는 다음달 19일 국내에 개봉된다.

'그레이스 오브 모나코'는 할리우드와 모나코 왕실을 모두 가진 단 한 명의 여배우인 그레이스 켈리의 가장 극적인 순간을 다룬 드라마다.

그레이스 켈리 역은 니콜 키드먼이 맡았다. 오드리 헵번, 마릴린 먼로와 함께 당대 최고의 할리우드 여배우였으며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뮤즈로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은 그레이스 켈리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다. 그녀를 연기할 여배우 캐스팅은 제작 초기부터 이목이 집중됐다.

올리비에 다한 감독은 '라 비앙 로즈'로 여주인공 마리옹 꼬띠아르에게 7번의 여우주연상을 안겨준 연출력을 인정 받은 감독.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여주인공 캐릭터 묘사에 탁월한 재능을 지닌 그가 니콜 키드먼과 어떤 시너지를 낼지 기대를 모은다.

8일 공개된 메인 포스터는 군중에 둘러 싸여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그레이스 켈리의 아름다운 자태를 담아내 시선을 끈다. 우아한 드레스와 은은한 미소로 왕비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니콜 키드먼은 특유의 고혹적인 매력을 전한다.

한편 '할리우드의 여신, 모나코의 왕비, 그녀가 원하는 것은 왕관만이 아니다'라는 카피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레이스 켈리가 이루고자 했던 야망이 무엇인지에 대해 흥미를 불러일으킨다. /유순호기자 suno@

"한국영화 전형 보여주는 배우"

칸영화제, 전도연 심사위원 위촉 이유 밝혀

제67회 칸 영화제 주최 측이 전도연(사진)을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이유를 밝혔다.

영화제 측은 8일 "심사위원으로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분들을 초청하는 것이 칸의 전통이다. 전도연은 아름다운 여배우로서 항상 칸 영화제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주었기에 이번에 심사위원으로 초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2007년 이창동 감독의 '밀양'으로 상을 받았던 때가 기억에 남는다. 전도연은 한국 영화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배우이고 이것은 칸 영화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 칸 영화제의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 기쁘다"고 덧붙였다.

전도연은 2007년 이창동 감독의 영화 '밀양'으로 칸 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했고 2010년에는 임상수 감독의 '하녀'가 경쟁 부문에 진출해 다시 칸을 찾았다. 올해는 심사위원 자격으로 세 번째 칸 무대를 밟는다.

한국 배우가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것은 전도연이 최초다. 영화제 기간 동안 칸에서 체류하며 경쟁 부문 심사에 참여하게 되며 심사위원으로서 개막식과 폐막식, 시상식 및 심사위원 공식 인터뷰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칸 영화제 심사위원으로는 심사위원장 제인 캠피온을 비롯해 캐롤 부케·소피아 코폴라·레일라 하타미·윌렘 대포·가엘 가르시아 베르날·지아장커·니콜라스 윈딩 레픈 등으로 세계적인 배우·감독들이 포진돼 있다.

한편 전도연은 최근 영화 '협녀, 칼의 기억'의 촬영을 끝마치고 개봉을 기다리고 있다. /이효원기자

공유, 배리어프리 영화 재능기부

'피부색깔=꿀색' 참여

배우 공유(사진)가 배리어프리 영화 화면해설을 위해 재능기부를 했다.

배리어프리 영화는 시각·청각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화면 해설 및 한국어 자막을 넣은 것으로 공유는 지난달 양수리 종합촬영소에서 융·로랑 뵈알로 감독의 '피부색깔=꿀색'의 화면 해설 내레이션에 참여했다.

공유는 "전부터 배리어프리영화에 관심이 있었는데 운 좋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장애인 관객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녹음을 하게 됐다"며 "관객들이 영화의 내용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집중하고 또박또박 자연스럽게 읽으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30개 영화제에 초청, 23개상을 수상한 작품 '피부색깔=꿀색'은 5세 때 벨기에로 입양된 만화작가 융 감독(한국이름 전정식)의 자전적 이야기를 담은 동명의 만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다. 일반 개봉은 8월이며 배리어프리버전은 오는 13일 개봉된다. /김지민기자

브라질행 '홍심' 변심은 없었다

월드컵 대표팀 최종명단 23명 발표
박주호·이명주 탈락… 깜짝발탁 無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 나설 23명의 최종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박주호(마인츠), 이명주(포항) 등의 탈락이 관심을 모았지만 대체적으로 전문가들의 예상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홍 감독은 8일 파주NFC(대표팀 트레이닝센터)에서 열린 '2014 국제축구연맹(FIFA) 브라질 월드컵 최종명단 발표식'에서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을 23명의 태극전사를 공개했다.

공격진에는 봉와직염으로 조기 귀국해 치료를 받아 온 박주영(왓퍼드)과 원톱 스트라이커 자원인 이근호(상주), 김신욱(울산), 구자철(마인츠) 등이 예상대로 선발됐다.

최종 후보 등을 놓고 고민을 거듭하던 미드필더와 수비수에는 박종우(부산)와 황석호(산프레체 히로시마)가 발탁됐다. 수비진의 중심을 잡아줄 선수로는 고참인 곽태휘(알 힐랄)가 뽑혔다.

봉와직염으로 치료를 받아온 박주호는 상태 호전이 늦어 이름을 올리지 못했고, 올해 K리그 클래식에서 9경기 연속 공격포인트를 기록한 이명주도 23명 명단에서 제외됐다.

축구협회는 최종명단 23명과 공개한 7명을 합친 30명의 예비명단을 이날 FIFA에 보낼 예정이다.

이날 선발된 선수들은 다음달 13일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본격 담금질에 들어간다. 최종 23명이 가려진 만큼 홍 감독은 월드컵 기간 모든 선수가 최적의 몸 상태에 이르도록 관리하고 팀 조직력을 다지는 데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대표팀은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튀니지와 평가전을 한다. 튀니지전은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맞설 알제리를 겨냥한 포석이다. 이어 30일 미국 마이애미로 출국해 다음달 11일까지 전지훈련에 나선다. 훈련 기간인 다음달 10일에는 가나와 평가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12일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브라질 포스 두 이구아수에 입성한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명단(23명)

▲ GK – 정성룡(수원) 김승규(울산) 이범영(부산)

▲ DF – 김진수(니가타) 황석호(요코하마) 홍정호(아우쿠스부르크) 곽태휘(알힐랄) 이용(울산) 김창수(가시와) 윤석영(돈캐스터) 김영권(광저우 에버그란데)

▲ MF – 기성용(선덜랜드) 한국영(쇼난) 하대성(베이징 궈안) 박종우(광저우 부리) 김보경(카디프시티) 이청용(볼턴)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손흥민(레버쿠젠)

▲ FW – 구자철(마인츠) 이근호(상주) 박주영(왓퍼드) 김신욱(울산)

2014 브라질월드컵 한국대표팀 프로필

유럽스타일 '젊고 커진' 대표팀

해외파 74%… 그리스전 멤버 '베스트 11' 근접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8일 오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2014 브라질 월드컵 본선 무대를 밟게 될 23명의 대표선수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4 브라질 월드컵 최종 명단에 이름을 올린 23명의 태극전사들이 '베스트 11'을 향해 본격적인 경쟁에 돌입한다.

개막까지 한 달여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부상 등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만 3월 6일 그리스와의 평가전에 출전한 선수들이 주전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당시 4-2-3-1 포메이션에 맞춰 출전한 주전들은 8일 발표된 최종 명단에 모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박주영이 원톱 스트라이커, 구자철이 섀도 스트라이커를 맡을 것으로 보인다. 좌우 날개는 손흥민과 이청용, 조합 중앙 미드필더는 기성용과 한국영이 유력시 된다. 또 김진수-김영권-홍정호-이용이 포백 라인을 형성할 전망이다.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는 필드플레이어와 달리 골키퍼는 마지막까지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표팀 선수들은 젊고 커졌다. 평균 체중은 76.1kg으로 남아공 월드컵 대표팀의 76.4kg보다 덜 나가지만 키는 184.0cm로 1.6cm 커졌다. 최장신은 195cm의 이범영이며 필드 플레이어 중에는 김신욱이 196cm로 가장 크다. 최단신 선수는 177cm인 김진수와 이근호다.

평균 연령은 25.9세로 남아공 때보다 1.6세 어리다. 가장 어린 선수는 1992년 7월 8일생인 손흥민이며, 30대 선수는 33세인 곽태휘가 유일하다.

월드컵 출전 경험이 있는 선수는 10명에서 9명으로 줄었지만, 해외파 선수는 10명에서 17명으로 대폭 늘었다. 이 중 8명이 아시아 클럽 소속이고, 유럽에서 뛰는 선수가 9명 포함됐다. /유순호기자

돌아온 이용대·김기정 대표팀 복귀

약물 검사 불응(행방) 불명으로 선수 자격이 정지됐다 풀린 한국 배드민턴의 간판스타 이용대(26·삼성전기·사진)가 국가대표팀 훈련에 합류한다.

8일 대한배드민턴협회는 "이용대 선수가 오는 18일부터 인도 뉴델리에서 열리는 세계남자 단체선수권에 출전하기 위해 태릉선수촌 대표팀 훈련에 합류한다"고 밝혔다. 이용대는 같은 징계를 받았다가 함께 철회된 김기정(24·삼성전기)과 8일 대표팀 훈련에 진행 중인 서울 태릉선수촌에 합류한다.

두 선수는 세계배드민턴연맹(BWF) 도핑검사에서 소재지 보고에 세 차례 응하지 않아 지난 1월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다.

이후 배드민턴협회는 행정적인 문제로 선수들이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해 일어난 사안임을 강조하면서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BWF에 재심을 요구했다. 그 결과 BWF 도핑청문위원단은 재심의를 열어 지난달 14일 두 선수에 대한 자격정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용대는 유연성(국군체육부대), 김기정은 김사랑(삼성전기)과 각각 남자복식에서 호흡을 맞춘다. /김형준기자 yuni@

프로야구 전적 8일

■ 잠실

한화	301	011	000	6
LG	100	001	000	2

■ 목동

NC	000	000	300	3
넥센	201	000	001	4

■ 문학

삼성	000	002	021	5
SK	000	000	000	0

■ 사직

두산	401	303	031	15
롯데	022	100	100	6